



주간 중국 창업

제 164 호 (2020. 1. 22)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9 대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CES 에서 보는 미래 자동차 (신랑과기, 2020.1.6)
- ▶ AI 보안 취약성에 대응하는 중국 신규 보안법 (과기일보, 2020.1.14)
- ▶ 상하이 주재 AI 기업수 세계 4 위, 인공지능 발전 관리를 위한 ‘상하이 솔루션’ (봉황과기, 2020.1.17)
- ▶ 중국 통계청 2019 년 경제 운영 데이터 발표 (이오왕亿欧网, 2020.1.18)

ISSUE 및 시장동향

- ▶ 애플이 CES 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 신랑과기 제공
- ▶ 평안보험이 건설하는 ‘의료+과학기술’신국면의 의료생태계 — 36kr 제공
- ▶ 청두에서의 인터넷 창업 장단점 — 리에원왕(猎云网)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31) IBM 과 Daimler, 양자컴퓨팅을 이용하여 더 좋은 배터리 개발 — 인터넷분석샬롱(互联网分析沙龙)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11)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트럼프정권, 이쯤해서 중국에 ‘커다란 포상’을 주는 진짜 이유 (겐다이(현대)비즈니스, 2020.1.16)
- ▶ 도쿄올림픽 부의 유산도 미지인 채... 2030년 삿뽀로 유치로 내 달리는 올림픽 병의 무서움 (닛칸 겐다이 디지털, 2020.1.16)
- ▶ 시주석 ‘국빈’ 방일의 시비 일중관계에 박힌 ‘4개의 가시’ 뽑는 것이 우선 (산케이신문, 2020.1.18)
- ▶ ‘일본의 독해력 15위로 하락’의 의미란? 국제학업성취도조사 ‘PISA’로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 (AMP, 2020.1.16)

KIC 중국 NEWS

- ▶ KIC 중국, 중국 최초 IT창업 플랫폼 처쿠카페와 MOU 체결 (2020.1.13)
- ▶ KIC중국, 일본의 ‘코트라’ JETRO와 협력 결정 (2020.1.14)

- ▶ (주)기술과가치 KIC중국 방문 및 업무 협의 (2020.1.16)
- ▶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KIC중국 견학 및 MOU체결 (2020.1.16)

주간 NEWS

1. 9 대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CES 에서 보는 미래 자동차 (신랑과기, 2020.1.6)

9 대 전통자동차제조사 2020CES 에서 집결했다. 미래 신기술은 어느 회사가 가장 강한가?

스마트모바일 운행시대가 오며 따라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미 CES 상의 고정 고객이 되었다. 이번 2020 CES 에는 4500 개 사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고, 차량기술을 가진 참가사는 635 개사에 달하여 전체 참가사의 14%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Mercedes-Benz, BMW, Audi 등 3 개의 독일 명품 브랜드를 포함하여 일본의 Toyota, Honda, Nissan 등 9 개의 전통 차량 회사가 자율 주행 및 스마트 상호 연결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였다.

독일 계열 브랜드: BMW 의 모바일 럭셔리 호텔과 벤츠의 등

‘맞춤형’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고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이 도시의 5성급 호텔과 같은 호화로움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은 BMW 가 이번 CES 에 가져온 BMW i3 Urban Suite 의 특별 버전으로 승객을 위해 맞춤 제작되어 승객의 개성화된 요구와 운행 체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BMW 엔지니어는 표준 BMW i3 을 원래의 운전 좌석과 계기판만 남겨두고 완전히 리모델링했다. 개조 후 차 내부공간은 발판이 달린 크고 넓은 좌석을 포함하여, 차 지붕에서부터 아래로 뒤집히는 스크린, 사적인 오디오 디자인 등이 있다. CES 기간 동안 특별하게 개조된 BMW i3 Urban Suites 는 라스베이거스의 크고 작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CES 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1) 출처: 신랑과기



사진 2) 출처: 이차왕(易车网). 앞 좌석 공간과 뒷좌석은 대형 '퀵 공동 운전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 코 파일럿에는 다리 발판과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다. 또한 조종석의 모든 버튼과 차량 내부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BMW가 이번 CES에 참여한 작은 부분일 뿐이며, BMW는 향후 10년 동안의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더욱 놀라운 제품 기술을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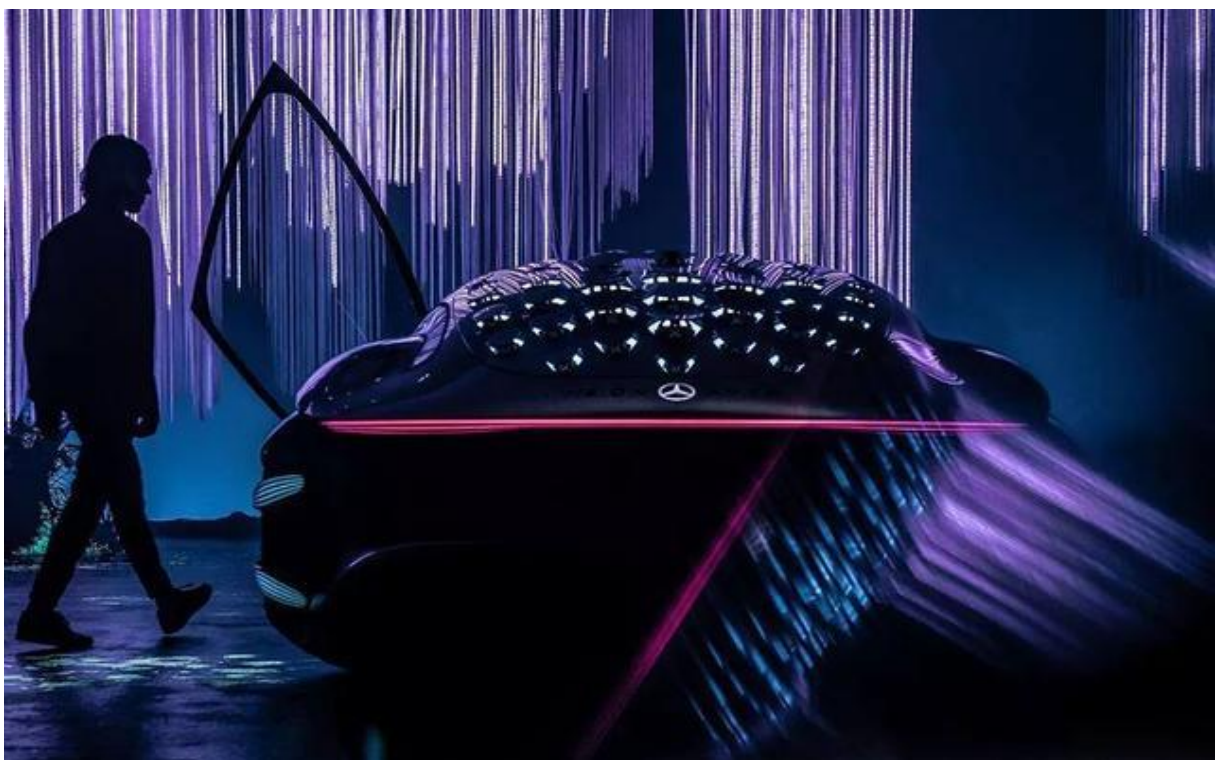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이차왕(易车网).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컨셉 카인 VISION AVTR. 웰 형 도어는 날개 퍼덕임 효과 지니고 뒤의 꽃잎 모양의 요소는 빛에 따라 '호흡'식의 피드백 구현. 내부는 친환경 재료이며 기존의 스티어링 휠이 없으므로 운전자는 센터 콘솔의 다기능 제어 센터를 통해 제어해야 하는데 다양한 버튼을 터치할 필요없이 손을 들기만 하면 인터페이스가 손바닥에 투사되어 승객이 VISION AVTR과 직관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BMW 의 이미 공개된 BMW i3 Urban Suite 와 비교하여 Mercedes-Benz 는 CES 이전에 새로운 컨셉의 차를 예고하면만 공개하여 궁금증을 최후까지 남겨놓도록 애썼다. 벤츠에 따르면 이것은 새로운 선진 컨셉차가 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영감을 얻은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진 4) 출처: 신랑과기

이 새로운 컨셉차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정보에 따르면, 2020 CES 전시에서 고객들을 향해 메르세데스-벤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EQC 400 4MATIC 와 Vision EQS 모델도 동시에 출시될 것이다.



사진 5) 출처: 신랑과기

독일 계열의 3 강 중 아우디의 이번 CES 에서의 주인공은 이미 작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Audi AI:ME 컨셉트 차가 될 것이다. L4 급 자율 주행 기술이 구비된 적용된 이 소형 차모델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미래 디자인은 Audi 의 미래 대도시에서의 최고의 여행 경험에 대한 비전을 전시했다.

일본계열 자동차기업: 비행기 핸들을 자동차로 옮겨온 혼다

일본의 3 대 자동차 회사 중 Honda 는 이번 CES 에 가져온 제품과 기술이 가장 풍부하다. 이는 이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 대한 중요도를 표시한다. 이 일련의 제품 과 기술에서 Honda 는 증강된 자율 주행 개념을 전시했으며 이미 자율주행으로 전향했음을 보여준다. 자율 주행의 미래에, Honda 는 소비자들이 운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으로 이동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Honda 의 공식 소개에 따르면, 이 증강 주행 개념 세트는 자율 주행에서 반 자율 주행으로 신속 민첩하게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 주행 시스템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으며 언제든지 관여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개폐 스위치를 통해 운전 시스템은 자동과 수동 모드를 전환할 수 있으며 완전 자동과 반자동 운전 모드 사이에는 8 종 이상의 주행 모드가 있다.



사진 6) 출처: 신랑과기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Honda 가 자율 주행에 배합하려고 연구 개발한 핸들인데 핸들을 두 번 가볍게 두드리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 핸들을 당기면 차의 속도가 느려지고, 핸들을 누르면 가속된다. 이 핸들 디자인 영감이 항공기 디자인 및 제조 분야에서 혼다 비행기 설계 제조 영역에서 축적된 것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혼다의 풍부한 전시물과 비교할 때 도요타와 닛산은 칭찬할 만한 장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Toyota 가 공개한 예고 화면에서 보자면, 작년 도쿄 모터쇼에서 전시된 e-RACER 컨셉 카, e-4me 와 e-Palette 의 조합인 듯 보인다. 도쿄 올림픽이 도래함에 따라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진 도요타는 각종 장소에서 자신의 미래 이동 개념 강화를 지속하여 이용할 것이다.



사진 7) 출처: 신랑과기

Toyota 와 마찬가지로 Nissan 의 전시 라인업은 이미 발표된 제품으로 지난 6 월 스코틀랜드에서 출시된 e-NV200 을 기초로 개조된 아이스크림 전기자동차이다. 차량 지붕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태양 전지판이 있다. 또한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인 닛산 Ariya 컨셉트 카와 ProPilot 2.0 자율 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스스로 홀에 들어가는 골프 공도 이번 CES 에 전시될 것이다.



사진 8) 출처: 신랑과기

포드의 양자 컴퓨팅과 미래 도시

포드도 이번 CES 쇼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며, 그 주인공은 지난 11 월에 갓 출시된 전기자동차(EV) SUV Mustang Mach-E GT 의 고성능 버전이며, 포드는 이를 '스마트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른다. Ford 에 따르면 Mustang Mach-E 는 새로운 Ford 모듈식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SYNC 4 시스템과 차량 OTA 기술을 탑재하여 미래의 스마트 자동차의 '표준 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드는 제품 외에도 항상 기업 시민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CES 에서 Ford 는 또한 다른 말로 포드 양자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왔다. 실제로 이것은 주차, 통근, 교통, 안전, 인구 조사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Ford 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이 소프트웨어(도시 스마트 플랫폼 City Insights Platform)를 사용하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시각화하고, 교통 참여자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진 9) 출처: 신랑과기

현대와 르노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며, 그중 현대는 두 개의 컨셉트 카——PAV 와 PBV 를 출시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두 대의 차량에서 한 대는 하늘을 날고 (비행 차량) 한 대는 지상을 달리는데, 양자는 모두 현대가 선보이는 미래 운행 비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현대 자동차의 가정 중, 승객은 입체 허브에서 환승할 수 있으며, PBV 는 완전 자동 자율운행기능을 구현하여 승객은 차량을 운전할 필요없이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다.



사진 10) 출처: 신랑과기



사진 11) 출처: 동방재부왕(东方财富网)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미래스마트도시 운영의 청사진



사진 12) 출처: 치차즈자(汽车之家)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이동 수단' 컨셉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사업 진출을 선언. 우버 엘리베이트와 손잡고 개인용 항공 이동 수단(Personal Air Vehicle) 컨셉으로 소개한 'S-A1'은 육상과 하늘 공간을 동시에 이동하는 '플라잉카' 전시.

유럽의 르노차는 이번에 두 합작 파트너와 공동 참가했다. 전체 차량 영역에서 르노는 FAURECIA(佛吉亚 편집자 주: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부스에서 수소 연료 전지 버전의 화물차량 MASTER Z.E. Hydrogen 을 전시한다.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Faurecia 와 Michelin 의 합자 회사인 Symbio 가 개발했으며 WLTP 항속 운행 거리가 350km 에 달한다. 스마트 커넥티드 분야로 Otodo 와 공동 개발한 일련의 '자동차 + 홈'솔루션을 전시한다. 즉, 자동차의 계속기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연결된 제품을 제어 조작할 수 있다.



사진 13) 출처: 치차즈자(汽车之家)

2. AI 보안 취약성에 대응하는 중국 신규 보안법 (과기일보, 2020.1.14)

오늘날 AI에 의한 얼굴 변화는 이제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어떤 스타를 좋아한다면 모든 드라마 주인공을 그의 얼굴로 바꿀 수 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오락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당신의 얼굴이 예로 비디오물에 이식된 후 해적판으로 판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휴대폰, 컴퓨터, 스마트 자물쇠 등에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되는 설비에도 AI로 바꾼 얼굴로 쉽게 공략하여 침입할 수 있다. 누군가 AI를 이용하여 가짜 비디오를 만든다면 이 또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 좋은 놀이거리가 아닌 것이다.

얼굴 스캔 지불,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이 인간 생활에 가져온 허다한 편리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땅히 바로 보아야만 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초보 발전 단계이고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라고 칭화대학교의 교수 겸 칭화대학교 인공 지능 연구소의 기초 이론 연구 센터 주임 주진(朱军)은 말한다.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될 때 AI 알고리즘 자체의 허점이 유발할 보안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동시에 AI 기술의 남용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윤리 문제와 같은 보안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AI가 경계 문제와 맞닿기 시작하면 안전성이 AI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루이라이 지혜 과기유한공사(北京瑞莱智慧科技有限公司, 약칭은 RealAI) 고급 상품징리 장쉬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기술적인 약점이 AI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

집에 가서 아파트 동 입구에 가서 얼굴을 스캔하면 문이 열린다. 사람 얼굴 자물쇠는 이미 생활속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AI 활용 장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AI 알고리즘이 명백한 보안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

RealAI 팀은 일찍이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식별 알고리즘 취약성을 공략해, 이름을 '노이즈'라 명명한 대항 샘플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I 알고리즘이 악의적으로 오도되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내고 식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팀원은 종이 한 장에 대항 샘플 '노이즈'를 인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식별 시스템하의 '은신'을 실현하게 된다. 만약 종이에 기타 사물을 붙이면 예를 들어 소형차 모형을 붙인다거나 하면 그 물체를 식별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실되어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 그들은 일종의 잡음이 있는 '안경'을 연구 개발하였는데, 쓰기만 하면 설사 본인이 아니더라도 성공적으로 상업용 스마트폰의 얼굴 식별 키를 해독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문 자물쇠 등 타인의 얼굴로 식별하는 설비도 포함한다.

'AI 알고리즘 취약점은 본질적으로 보안 문제의 큰 범주이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종종 공격과 방어의 양 끝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장쉬둥(张旭东)은 말했다. 현재 주류 공격 수단 모두 비교적 효과가 있는 방어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훈련 모형을 통해 대항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고, 대항 샘플을 탐지 후 그것을 데이터에서 제거하고, 공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량의 대항 샘플을 생성하여 샘플에 대항 훈련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I 얼굴 변경 기술도 부단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얼굴 변경 기술로 생성된 비디오 속의 인물은 종종 눈을 깜짝이지 못했고 이러한 비교적 명확한 특징으로 직접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조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식별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장에서 유행하는 얼굴 변화 알고리즘에 따라 대량의 훈련 샘플을 생성한 다음 아직 출현하지 않은 신형 가짜 비디오를 처리하기 위해 베이저안 학습(Bayesian Learning)을 결합할 것이다. 간단한 이해해서, 그것이 주류에 기초하면서 더욱 진보된 생성기술로 제작된 대량의 진짜같은 가짜 비디오라는 것이다. 다시 이러한 가짜 비디오를 이용해 훈련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든 가짜 비디오가 더욱 진짜같은수록 훈련으로 나오는 모델 식별력도 더욱 강해진다.’고 장쉬둥은 설명했다.

기술과 법규 두 가지 길을 준수해야

“AI 기술 남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개인 정보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심한 사적 정보를 파생시킬 수 있고, 신형 암흑 정보, 포르노물, 금융사기 등을 탐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장 쉬둥이 말했다.

또한 AI 기술 남용의 잠재적 영향은 대중의 정보 취득과 사회 신뢰도 측면에까지 확산되어 공공의 여론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신뢰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찍이 국가 지도자 비디오가 악의적 목적으로 유출되었다. 제작자는 영상을 이용하여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고, 선거를 파괴하고, 외교를 방해한다. 장기적으로는 진상을 분별하기 어려운 대중은 믿거나 믿지 않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만약 믿기를 선택하면 불법분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믿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장기적인 사회적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

장쉬둥은 AI 보안 문제가 사소한 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과 규정의 두 길의 ‘관문’을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회 각 계의 역량을 연동하여, 관리감독 기구부터 AI 기술 기업과 일반 대중까지 함께 중시하고 공동으로 힘을 발휘해야 진정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쁜 소식은 관련 국내 관리감독 기관이 AI 보안 문제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 왕쑤반은 정식으로 <인터넷 오디오 영상서비스 관리규정>에서 2020 년 1 월 1 일부터 AI 로 조작한 오디오 및 비디오를 마음대로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 중에서 AI 로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주요 조항 4 가지가 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 수행, 리얼이 아닌 오디오 영상 정보에 뚜렷한 표식을 부과할 것, AI 위조 기술을 이용한 허위 뉴스를 발표해서는 안되며, AI 위조 오디오 비디오 감별기술 배포와 루머를 제거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솔루션은 여전히 기술이 기술을 상호견제하는 것이라고 장쉬둥은 말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고정밀 AI 검측 알고리즘과 검측 제품을 개발하여, 시초부터 허위 내용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응하는 ‘방화벽’기술을 개발하여 발단부터 방어하는 높은 방어벽을 구축하여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공공 안전 장비가 파괴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 상하이 주재 AI 기업수 세계 4 위, 인공지능 발전 관리를 위한 ‘상하이 솔루션’ (봉황과기, 2020.1.17)

1 월 17 일 상하이시정협 제 13 회 3 차 회의가 거행되며 첫번째 대회 연설이 있었다. 쉬지엔민(徐建民) 위원이 정협 경제위원회와 경제계를 대표하여 발언하였다.

쉬지엔민은 인공 지능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혁명과 산업 변혁의 핵심 원동력이며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는 분야라고 말했다. 상하이의 인공 지능 개발은 국가의 전략적 과제이자 상하이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요구다.

쉬지엔민은 현재 상하이가 이미 초보단계의 상하이 인공 지능 브랜드 효과를 형성하여 중국의 인공 지능 발전 분야의 주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2019 년 6 월말까지 현재 상하이는 인공지능 회사 주재율이 중국내에서 20.3 %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4 번째 순위다. 인공 지능 분야의 중점 기업으로 1116 개사가 있으며, 그 중 183 개 회사는 2018 년에 총규모(산업 가치/수익)가 1339.78 억 위안을 기록했다.

“동시에, 우리는 발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정책으로 원동력을 일깨우는 데 부족하며, 활용 시범 잠재력을 발굴하는데도 부족하고, 제도가 협동력을 제공하는데도 부족, 인재 모집 압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여러 문제와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략적 집중력을 강화하고 인공 지능을 상하이의 3 대 실천 전략과제를 위한 중요 도구로 삼아, 상하이가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에서 핵심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쉬제엔민은 커창반 설립을 기회로 삼아 상하이 지역 인공 지능 기업이 커창반에 상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미 상장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추적 서비스를 잘 수행하며, 본사와 기술 연구 개발 센터를 적극적으로 정착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자유 무역 시범구 신지역을 매개체로 삼아 인공 지능을 전략적 산업의 최첨단 정책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국제적 가시성을 갖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장강 삼각주 일체화의 방향으로 인공지능 협동 혁신활용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협조 활용과 데이터 공유개방을 추진한다.

‘혁신 동력을 자극하고, 기본 이론과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에 혁신 자원을 기초 이론과 핵심 기술 연구발전상에 집결하고, 상하이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쉬지엔민은 ‘한편으로 과학 연구 지원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고, 인공 지능 칩, 알고리즘, 오픈 소스 프레임 등 핵심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조직하여 추진하고, 인공 지능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여 핵심 기술 협업 혁신을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쉬위(徐汇)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1 조급의 인공 지능 산업군으로 1 조급의 디지털 지원 산업을 지원하고, 쉬위 인공 지능 산업이 장강삼각주 일체화 디지털 경제발전 혁신의 근원지가 되도록 추진하자’고 발표했다.

상하이는 활용 잠재력을 발굴하고 인공 지능 적용범위의 개방 수준을 높이며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과 호환되는 데이터 공유, 업무 도입, 효과 평가 등의 실시 법칙을 앞장서 건립해야한다. 스마트 의료, 자율 주행, 스마트 제조 등의 영역에서 전국적이고 세계적 의의를 지니는 영역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상하이가 인공 지능의 최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리드하고 혁신적이며 적합한 인공 지능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공 지능 위험 평가와 법제 감독 시스템 구축을 먼저 시행하고, ‘상해 솔루션’으로 글로벌 인공 지능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인공 지능 산업 표준을 확립하고, 산업 진입 장벽과 행동 준칙을 만들고, 인공 지능 기업의 규범안에서의 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재 압력에 직면하여 인재배양과 유입을 상하이 인공지능 고지의 첫번째 임무로 설정하고, 최적의 정책으로 인공지능 인재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쉬지엔민은 이와 같이 말하며 인공지능 기초교육과 학과를 확충하여 인공지능 미래 인재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준을 세분화하고, 인재 계획을

수립하며 개인 세금 납부, 호구 지표, 주택 보조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어 각 영역의 인재가 상하이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지엔민은 인공 지능이 도시경제사회의 높은 수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상하이는 반드시 국제 영향력을 갖춘 인공 지능 고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4. 중국 통계청 2019 년 경제 운영 데이터 발표 (이오왕亿欧网, 2020.1.18)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효율성 및 합리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2020 년에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진일보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사진 1) 출처: Unsplash

1 월 17 일, 국가통계국이 2019 년 경제 운영 데이터를 발표했다.

1 차 계산에 따르면, 연간 국내 생산량 총가치는 990865 억 위안으로, 가격 계산으로 비교하자면 전년 대비 6.1 % 증가하여, 6 % -6.5 %의 예상 목표에 부합한다.

분기 별로는 1 분기가 전년 대비 6.4 %, 2 분기가 6.2 %, 3 분기가 6.0 %, 4 분기가 6.0 % 증가했다.

연말 중국 본토의 총 인구 (31 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군인을 포함했고,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와 대만성과 해외 화교 인구수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전년 말보다 467 만 명 증가한 140005 만 명이다. 한해 출생자 수는 1465 만 명이고 출생률은 10.48 ‰이며, 사망자 수는 998 만 명, 인구 사망률은 7.14 ‰, 인구 자연 증가율은 3.34 ‰이다.

2019 년 중국의 1 인당 국내 총생산은 70892 위안이며 연평균 간 평균 환율은 10276 달러로 10000 달러의 큰 관문을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달성했다.

세계 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 1 인당 GDP 가 미화 1 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인구 규모는 거의 15 억 명에 달했다. 총 인구가 14 억 명에 달하는 중국이 1 인당 GDP 가 10,000 달러 이상인 국가의 행렬에 진입하여 전 세계에서 이 행렬에 드는 국가 인구는 30 억 명에 이를 것이다. 전세계 약 70 억 인구 중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 30 억 인구의 1 인당 GDP 가 10,000 달러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인류 경제 사회 발전의 중대한 진전이며, 중국이 발전하는 신행경제체로서 세계에 공헌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9 년 세계에서 중국의 GDP 비중은 16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 성장의 공헌율은 약 30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 발전 동력이 가장 충분한 기관차이며, 중국인의 평균 GDP 는 세계 중등 수입의 국가에 속하며, 인간개발지수(人文发展指数 편집자 주: 인간개발지수 HDI-Human Development Index 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 국가의 교육수준, 1 인당 소득, 평균수명 등을 기준으로 국가의 삶의 질을 점수로 계량화하여 인간개발의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지위는 더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2019 년 1 차 산업의 가치가 70467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 증가했으며, 2 차 산업증가치가 386165 억 위안으로 5.7 % 증가했으며, 3 차 산업증가치는 534233 억 위안으로 6.9 % 증가했다.

한해 전국 규모 이상의 산업증가치는 전년 대비 5.7 %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사회 소비품의 총액은 전년 대비 8.0 % 증가한 411649 억 위안이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이외 소비재의 소매 판매액은 372260 억 위안으로 9.0 % 증가했다.

전년 국가 고정 자산 (농민 가구 제외)투자는 551478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 증가했다.

한해 화물 수입품과 수출품의 총 가치는 전년 대비 3.4 % 증가한 315446 억 위안이었다.

전년 전국 주민 1 인당 가처분 소득은 30733 위안으로 전년 대비 8.9 % 증가했다.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9 % 상승했으며 이는 약 3 %정도로 잡았던 예상 목표에 부합한다.

1 년 동안 도시와 마을에서 새로 취업한 사람들이 1352 만명이며, 7 년 연속 1,300 만 명 이상을 유지하여 예상 목표 1100 만 이상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간 목표의 122.9 %가 달성되었다.

2019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는 132194 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9.9 % 증가했다.

2019 년 부동산 개발 기업이 달성한 자금은 178609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6 % 증가했다. 그 중 국내 대출은 2 조 5229 억 위안으로 5.1 % 증가했다. 이용 외국 자본은 176 억 위안으로 62.7 % 증가, 자기 조달 자금은 58158 억 위안으로 4.2 % 증가, 예약금과 선수금은 61359 억 위안, 10.7 % 증가했고, 개인 담보 대출은 27281 억 위안으로 15.1 % 증가했다.

같은 날 (1 월 17 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은 기자 회견을 열었고, 국가통계국 ning지저(宁吉喆) 국장이 2019 년 국민경제 운행현황을 소개했다.

2019 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990865 억 위안, 경제총량은 100 조 위안에 근접했고, 연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14.4 조 달러로 세계 2 위를 차지한다.

2019 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 2.3 %이며 일본과 유로의 성장률은 1 %보다 약간 높으며 인도의 성장률은 5 % 남짓이므로 여전히 6.1 %의 중국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의 챔피언이다.

2019 년 중국 곡물 총생산량은 6.6 억 톤으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이며, 연말 고속철도 영업 총 운행 거리는 3.5 만 킬로미터에 달해 전세계 고속철도 거리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고속도로 주행 거리는 세계 점유비중이 예상보다 많은 1 위인 140,000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전력설비용량은 2032 킬로와트에 가까워 세계에서 1 위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8.6 억명이다.

2019 년 중국 GDP 의 세계 점유율은 16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 경제 성장의 기여율은 약 30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9 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9 % 상승하여 년초에 제출한 약 3 %의 예상목표에 부합했다.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 는 전년 대비 1.6 %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전년보다 낮았다.

1 년을 두고 보면, 최종 소비 지출의 기여율은 60 %보다 약간 낮아 57.8 %이며, 자본 형성 총액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상승하여 연간 31.2 %에 도달했다. 화물과 서비스의 순수출 즉 화물과 서비스의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기여율은 11 %이다.

소비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 성장의 첫 번째 원동력이며, 만 1 년을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60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중국의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효율성, 합리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2020 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좋으며 장기적인 개선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 비록 단기적으로 경제 하강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지만 진일보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올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ISSUE 및 시장동향

1. 애플이 CES 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 신랑과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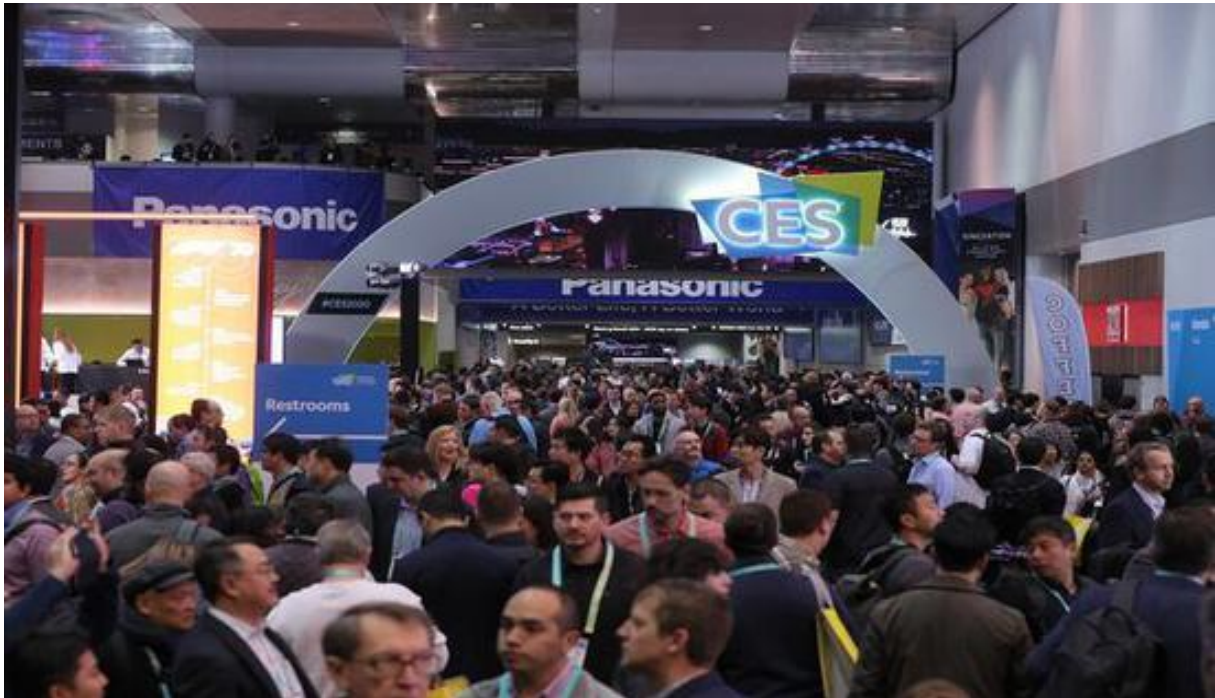


사진 1) 출처: 신랑과기

1 년에 한 번 한주간 열리는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지난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끝났다. 의심할 여지없이 50 여년의 역사를 가진 CES 는 글로벌 규모의 최대 산업 전시회이며 매년 소비자 가전 산업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풍향계이기도 하다. 올해 CES 는 4,400 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제조업체, 미디어, 공급 업체, 개발자, 구매상, 개인 애호가 등 전 세계 16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17 만 명을 유치했다.

올해 CES 의 재미거리는 'Apple 의 CES 귀환'이었다. 그렇다면 애플은 실제로 CES 로 돌아왔는가? 당연히 아니다. 애플은 이미 거의 30 년 동안 CES 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 2) 출처: 신랑과기

Apple 이 없는 CES 에서 삼성과 소니는 부스 규모가 가장 큰 참가사다. 소비자 전자 산업 배후의 핵심인 Qualcomm 과 Intel 은 CES 의 주력군이다. 인터넷 거인 구글과 아마존도 CES 에 와서 인공 지능 음성 보조기와 스마트 홈 제품을 홍보했다.



사진 3) 출처: 신랑과기

마이크로 소프트는 일찍이 CES 역사의 주인공이었으며 Xbox, Windows Vista, Windows 7 이 모두 이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Bill Gates 의 기조 연설은 1994 년부터 2008 년까지 계속되었으며 매년 CES 역사상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다.



사진 4) 출처: 신랑과기

그러나 지난해 애플은 오히려 라스베이거스에서 거대한 옥외 광고를 시작했다. '아이폰에 있는 것들, 아이폰에 머물게 하라'며 주로 숨어있는 보안 기능을 광고하는 것인데 CES 전시장 바로 맞은 편 호텔에 위치하고 있어 참가자들의 주목을 크게 이끌었다. (이 광고 문구는 라스 베이거스의 유명한 여행 광고 문구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게 하라'를 수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CES 에서 애플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단지 한 명의 관리인원(심지어 핵심 고위급임원이 아닌)을 파견하여 한 차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탁 회의에 참가하게 했다. 상술한 광고에서 드러나듯,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항상 Apple 제품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였으며 Apple 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추진하는 주요 논제다.

소비자 가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회인 CES 는 의심할 여지없이 이 주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프라이버시 관련 원탁 회의에 참여한 Apple 의 프라이버시 사무의 고급총감외에도 Facebook 의 프라이버시 최고 책임자와 규제 기관인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 감독관리부문(FTC)의 대표가 있었다. 비록 소비자 가전 하드웨어 제품도 소량 있지만 Facebook 은 여전히 소셜 네트워킹의 거인이라 당연히 CES 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 5) 출처: 신랑과기

그러나 Apple 은 CES 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한번 참가한 것이 1992 년의 일이다. 그때 애플의 CEO 는 여전히 존 스컬리(John Sculley)였으며 당시 CES 는 시카고와 라스베이거스에서 2 곳에서 열렸다. Sculley 는 그해 5 월 시카고의 CES 에서 Apple 의 PDA 제품인 Newton 을 선보였으며 이 제품은 1993 년에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으며 1998 년에 이르러 생산이 중단되었다.



사진 6) 출처: 신랑과기

한 가지 더, 잡스는 1983 년 펩시의 세일즈와 광고 고수인 스컬리 (Scully)를 영입해왔다. 그러 나 그가 스컬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동사회는 스컬리 편에 섰고 잡스는 이로 인해 1985 년 분기탱천하여 애플을 떠나 NeXT를 설립하고 Pixar의 지분을 대부분 인수했다. 훗날 잡스가 구원투수격의 CEO로 애플에 돌아간 후 첫 번째 사장시킨 제품 라인은 스컬리의 Newton 이었다. 오만한 스티브 잡스는 스컬리를 용서한 적이 없다. 후에 오히려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 가전 산업과 애플에 가져온 엄청난 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여러 번 칭찬했다.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소비자 가전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로서 Apple 은 왜 CES 에 참가하지 않았을까? Scully 는 CES 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잡스는 참가한 적이 없다.

Apple 은 왜 CES 에 참석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CES 와 같은 전시회의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거대한 유동 플랫폼을 제공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미디어와 디지털 매니아의 관심을 받고, 참가 업체에게 신제품 출시 무대와 합작 및 구매를 협의할 장소를 제공한다.

여기에 답안이 있다. 애플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CES 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글로벌 가전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고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인 Apple 의 매 제품 출시 는 세계적인 이슈다. 애플은 10 억 명 규모의 충성도 높은 사용자 그룹을 지녔고 주요 국가 시장에 직영점 체제가 널리 퍼져있으며 모든 운영상과 유통상이 먼저 애플과의 합작을 신청한다. 애플은 CES 와 같은 무대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실상, Apple 의 경우 CES 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전혀 손실이 없다. CES 에 참가하지 않아도 애플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매년 CES 에서는 Apple iOS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이 등장한다.

같은 이유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CES 외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이동통신컨퍼런스 MWC,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전자소비제품전시회 IFA, 중국 대만에서 개최하는

국제적 컴퓨터 전시회 Computex 등에 애플은 일절 참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 전시회는 말할 것도 없고, Apple 은 자체 생태계 전시회인 Macworld 에도 참여하길 원치않는다.



사진 7) 출처: 신량과기

그러나 Macworld 는 Apple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 IDG Group 산하 <Macworld>잡지가 1985 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 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ple 생태계 상품전시회다. 사실 애플이 CES 에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원인이 있는데 라스베이거스의 CES 와 Macworld 가 시간 상 겹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 년 이전에 Apple 은 일반적으로 MacWorld 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으며 잡스도 이 무대에서 테마 강연을 했다.



사진 8) 출처: 신량과기

iTunes, Safari, Mac Mini, MacBook Air 일련의 전통적 Apple 제품이 Macworld 무대에서 출시되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iPhone 이다. 2007 년 1 월 9 일, Apple 은 Macworld 컨퍼런스에서 iPhone 을 출시하여 당시 같은 기간 개최되던 CES 의 모든 주목을 거기로 가져가버렸다.

2009 년 애플은 Macworld 에 마지막으로 참가했고, 잡스도 병에 맞서 싸우느라 그해 테마 강연에 출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플의 철수는 Macworld 전시회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역지로 몇 회를 유지한 후 Macworld 는 결국 2014 년에 30 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Macworld 컨퍼런스를 직접 끝낸 것은 애플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Macworld 컨퍼런스에 참석하던 Apple 팬과 참석자는 이제 Apple 의 자체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 WWDC 에 집중하고 있다.

애플은 Macworld 전시에서 철수하여 출시발표회를 모두 자체 무대에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CES 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2009 년 여전히 병가중인 잡스는 CES 가 주최한 소비자전자협회 CEA (German Electronics Association) CEO 게리 샤피로 (Gary Shapiro)의 초대를 직접 거절했으며 다음해 CES 에 가서 테마 강연을 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애플의 출시 주기는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매년 통상적으로 3-4 번의 출시회가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6 월 WWDC 회의 (보통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와 9 월경의 iPhone 출시회다. 이외에 매년 봄가을과 10 월에 비정기적인 발표회가 진행되어 iPad, MacBook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출시된다.

애플의 Macworld 철수는 또 다른 거인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게 자극을 주었다. 2012 년 Microsoft 는 CES 에 작별을 고했으며 Microsoft 는 18 년 동안이나 연속하여 전시회에 참가해 왔었다. 당시 마이크로 소프트는 공식 블로그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제품 발표 주기와 1 월경 CES 와는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자체 출시회와 공식 웹 사이트, 십여개의 소매점, 페이스북 북과 트위터의 소셜 미디어 팬에게 '변화할 시간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이유는 2009 년 애플이 Macworld 에서 철회할 때 발표와 판매 박은 듯 같다.



사진 9) 출처: 신랑과기

또한 각종 산업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Apple 의 '차별화'된 브랜드 포지셔닝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특수한 고급 브랜드 이미지는 Apple 의 전형적 광고 'Think Different'에서 애써 구축한 이미지이며 Apple 제품 브랜드 프리미엄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언젠가 애플이 CES 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많은 동종 업계와 함께 부스를 설립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애플의 마지막 날이다. 이는 애플만의 독특한 매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이미 다른 하드웨어 제조업체와 차별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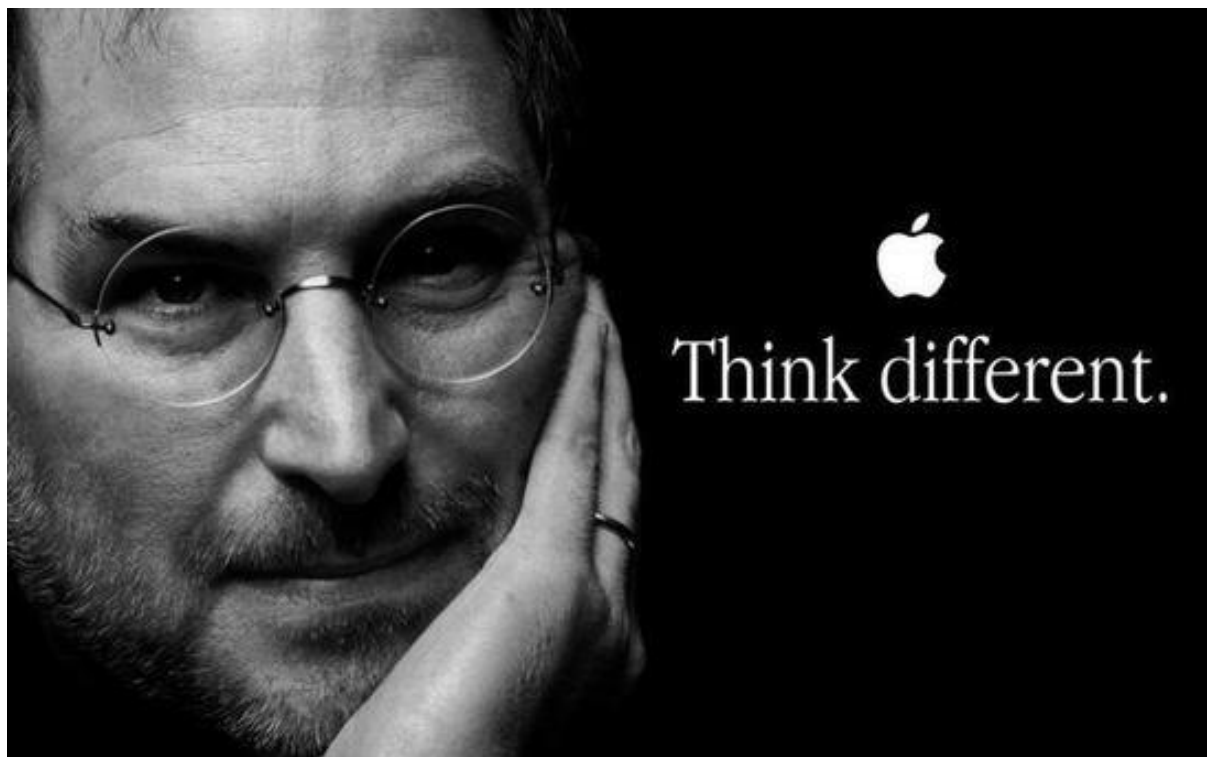


사진 10) 출처: 신랑과기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2. 평안보험이 건설하는 '의료+과학기술'신국면의 의료생태계 — 36kr 제공

인구의 고령화는 일찍이 '오래된 대화'가 된 문제였다. 2018 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보여준다.

이번 한 해 세계의 노년 인구가 처음으로 유아와 아동 수량을 추월했다. 이에 따라 의료 보건과 양로 건강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요구가 생겨 났으며, 국립 보건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연속 발표하여 의료 기관이 독립적인 의료 검사 실험실, 병리 진단 센터, 의료 영상 진단 센터 등 제 3 방 의료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중국의 제 3 방 의료 서비스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평안의료건강관리주식유한공사(平安医疗健康管理股份有限公司)산하의 평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 (检测) 中心)는 중국에서 제 3 자 의료 서비스 기관을 배치하는 데 떠오르는 스타로, 현재 전국에 400 여개가 넘는 건강 검측 센터를 27 개 성에 설립했고, 5 년 내에 1,000 개의 건강 검측센터를 열 계획이다. 현재 일부 의료 기관의 비용 절감 관리, 설비 제한과 고르지 않은 자원 할당 문제에 맞서 평안건강검사센터는 획기적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삼위 일체'혁신 모델

의료 건강 산업의 발전에 따라, 천인에게 한가지 방식의 처방은 최종적으로 개성화되고 정교화된 처방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는 병원내외가 통합하는 좋은 기회다. Ping An Health (Testing) Center 는 환자를 위해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수준의 공립/사립 병원의 파트너로 활동하여 지역 의료 생태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양질의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림 1) 출처: 36kr

다른 타사 의료 기관과 달리 평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는 전국에서 최초로 영상 진단, 의료 검사, 정밀 검사의 '삼위 일체'에 대한 종합 의료 모델을 만들었다. '삼위일체'서비스 모델이 3 가지 형식 중 고도의 협동을 실현하여 임상 의학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증거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 의료 서비스 모델은 회사의 내부 운영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높으므로 평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는 '천지인다강(天地人多强)'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천은 티엔왕(天网) 즉 스마트 의료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는 디왕(地网) 전국 지면을 커버하는 서비스 인터넷을, 인은 인왕(人网)으로 권위있는 전문가 모임을, 다는 다양한 업태를 뜻하고 '3 위 일체'의 기초상에 공유의료플랫폼을 구축한다. 강은 강한 과학기술, 서비스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응용되고 의료 체험이 높아진다.

장비 측면에서 평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는 세계 최고의 '과학 연구용 영상장비'를 도입했으며 '현대 의료 고급 과학기술의 왕관'으로 알려진 PET/CT 를 포함하여, 종양, 뇌, 심혈관 질환의 3 대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의 선별 검사에 활용된다. 또한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계통 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사용될 수 있다.



사진 1) 출처: 36kr

‘의료 + 기술’의 신국면을 공동 구축

핑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는 자체 구축, 공동 구축, 가맹, 위탁, 스마트 영상 등의 형식을 통해 중국 전국을 포괄하는 제 3 방 건강검측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시에 모바일 및 스마트 이미징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타사 건강 테스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 AI 기술 및 얼굴 식별 등 스마트 기술은 진단 품질과 고객의 의료 체험을 크게 높였다. 각종 등급의 의료 기관과 합작하며 자체 연구개발한 ‘핑안하오영상(平安好影像)’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격 판독 및 전문가 상담을 수행하며 기초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핑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가 등급별 진단 및 치료, 혁신적인 의료 모델, 과학 기술이 생태계 등의 방향에 주는 노력 덕분에 2019 년도 ‘의료 서비스 왕’이라는 영예를 획득했다.

핑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는 글로벌 디지털 이동검측차량, 이동 CT 영상차량의 연구개발을 통해 일류 테스트 서비스를 기층과 원거리 지역의 국민들 곁으로 전승했다. 2019 년 12 월까지 핑안건강이동검측차는 이미 12 개 성을 돌아 거의 10 만 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과 전문가 무보수진단서비스를 해주었다.

의료 검측 표준

2019 년 중국전국 ‘양회’에 대한 정부 보고서는 등급별 진단 치료 시스템을 꾸준히 홍보하고 사회 의료제정을 추진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등급별 의료 정책이 점차 기층 시장을 열었고, 2 급과 그 아래 기층위원의 의학 검진 요구를 분명히 드러냈고, 제 3 자 건강 검진 기관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진 2) 출처: 36kr



사진 3) 출처: 36kr



사진 4) 출처: 36kr



사진 5) 출처: 36kr

실제로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도 평안 의학검측실험실은 완전 자동화된 운영 및 여러 테스트 시스템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정규 프로젝트는 1 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자동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30 분 내에 완성하며 오류율은 천만분의 3.1로 제어된다.

그러나 제 3 자 의료 기관의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지방 정부는 관련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둘째, 의료 위생자격과 건설 자격에는 엄격한 통제가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하나의 영상센터를 개설하는데 전후로 최소 40 개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또한 제 3 자 검사 결과와 병원 간의 상호 인정 문제에는 시간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검측 비용을 낮추고 대형 병원의 압박을 낮춰주고 전문적으로 임상기술에 집중하여 해결하기를 기원한다.

전반적으로 제 3 자 의료 서비스 기구의 시장은 균용상태에 처해있고 일어서려는 시대다. 이 경지장에서 평안은 전형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리더로서 장점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대투자'인 제 3 방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강력한 산업 체인과 자본 체인을 보유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 우리는 평안건강검사센터(平安健康(检测)中心)의 독립창조한 '삼위일체'의료 모델을 통해 사회 의료 자원 배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곧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3. 청두에서의 인터넷 창업 장단점 — 리에원왕(猎云网) 제공

2017 년 베이징 따싱씨홍문(大兴西红门)의 큰 화재로 양슈아이(杨帅)의 인생 궤적은 크게 바뀌었다.



사진 1) 출처: 리에원왕(猎云网)

베이징이 포인트 호구제도(积分落户 일종의 포인트점수식의 베이징호구 부여제도로 과학기술 기여도, 전문 기술과 지식, 베이징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북경인 호구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하여 표준 점수에 도달하면 베이징 호구를 주는 정책)를 정식으로 시행한 후 30 세가 된 양슈아이는 자신이 베이징에서 한평생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떠날 결심을 보다 빨리 실행하게 되었다.

창업은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슈아이는 자연스럽게 문화 창조의 도시 청두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는 9 년 전 청두를 지난 적이 있고 청두의 분위기에 빠져 청두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적당한 직업을 찾지 못해 결국 떠났었다. 오늘날 청두는 성숙한 창업의 도시가 되었으며 편안한 생활, 유유자적한 생활리듬과 강한 문화적 분위기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자를 끌어 들이고 있다.

그래서 양슈아이는 원래 팀에서 6 명을 이끌고 청두로 가 2018 년 3 월에 청두치징문화유한회사(成都骑鲸文化有限公司)를 설립했다.

1. 청두에서 창업, 그리고 청두에서 생활

청두는 특별한 도시다.

양슈아이와 함께 청두에 온 공동 설립자 류웨이(刘葳)는 광둥사람이고 광저우 선전 같은 발달한 도시에 머물렀고 주하이와 같이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했었지만 강한 문화적 느낌을 주는 도시는 없었다.

이러한 문화적 감각은 청두의 천년 내공에서 온다. 이 특별한 문화는 청두 사람들을 천천히 물들였으며, 마작을 하고, 휘귀를 먹고, 팬더를 보는 생활은 이곳을 전국에서 가장 한가로운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다. 외부인이 일단 청두에 오면 이곳의 저렴한 비용과 농후한 생활 분위기, 개방적 자세로 외부에서 온 모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배경에 의존하고 아버지의 부와 권력에 의존해 살 수 있으며 모두가 여기에서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다.

2017 년 한 해 청두의 '룽파오(蓉漂 편집자 주: 베이징에 취업하러 와 타향살이를 하며 떠도는 이를 베이파오라 하듯 성공하기 위해 타향인 청두에 와서 창업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뜻함) 그룹은 37.2 %를 차지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1 선 도시의 매력을 가졌다. 보스즈핀(Boss 直聘)은 직접 '2019 년 2 분기 인재 유인력 보고서'를 발표했고, 청두는 2019 년 졸업생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도시 순위에서 3 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상하이와 선전을 능가했다.

청두의 생활 분위기와 느린 삶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청두에 머무르거나 청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다. 일찍이 한 창업가가 한 명의 북방인이 청두에 남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에서야 나는 비로소 차주전자 물이 끓으며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늑길 원하기 때문에 청두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청두 이 도시는 청두 창업가들에게 느긋한 생활 리듬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이 선물 뒤에는 청두창업가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했다.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도시 청두의 창업분위기는 새로운 1 선 도시 중에서도 아주 농후한 편이다. 구둥(咕咚 편집자 주: 스마트 운동 서비스 플랫폼 App)의 창업자 선보(申波)는 기자에게 회고한 기억을 말해주었다. 2010 년 청두에 사업장과 인큐베이터가 등장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가 보기에 청두 정부의 창업 전략 사고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중국 최전선에 있다.

청두 까오쑤구(高新区 편집자 주: 첨단산업 개발단지인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术产业开发区)의 약칭) 연감데이터에 따르면, 2009 년 청두의 창업선봉이던 까오쑤구는 6 개의 국가급 인큐베이터를 보유하고 3 만 평방 미터의 인큐베이팅 면적을 추가했다. 초기 단계 배포이후 청두의 창업열풍이 2014 년에 폭발하여 2016 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13 년 청두 까오쑤취 신규 기업 수는 5578 개 사였고, 2014 년에 이 데이터는 11517 개로 206 % 증가했으며, 2015 년 신규 증가 기업은 18196 개로 증가했고, 2016 년에는 157%라는 대폭 증가에 힘입어 28650 개 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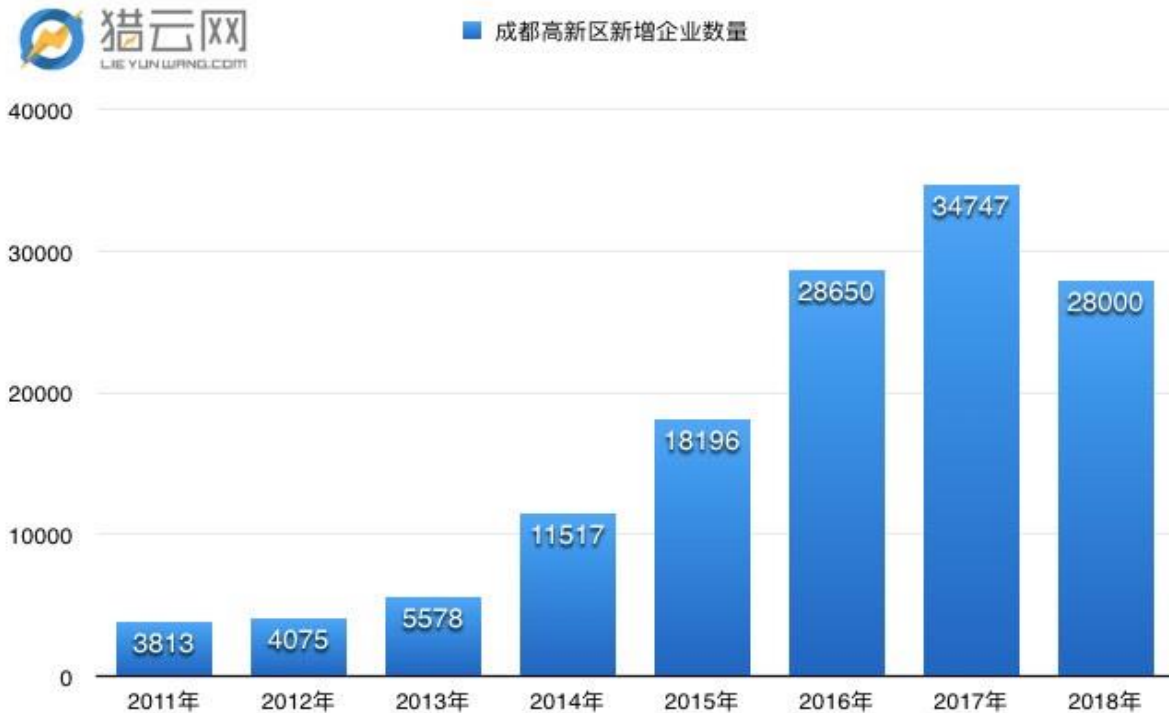


표 1) 출처: 리에원왕(猎云网)

한 편으로 청두는 방문자들에게 충분한 성의를 보여주었으며, 도시의 본래 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인재 신정책'을 도입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재를 위한 그린 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 정착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다른 한편, 정부의 창업 정책과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2015년 까오쑤구는 '창업 10조'를 내놓아 창업의 꽃이 피도록 촉진했다. 2018년 청두는 <청두시 심화 실천 혁신발전전략구축 '쌍창' 업그레이드 버전 정책 실시>를 내놓았는데 인재 지원, 기업 보조, 매개체 제공, 세금수입 개선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청두의 생활 속도가 느린 조건하에 임대료와 인건비의 이점도 매우 명확하다는 것이다. 리에핀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청두시 중급 고급 인재 보고서>에서 부동산 업계 최고 중급 및 고급 인재의 연봉은 19.22만 위안으로 모든 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선보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청두의 창업 시행 착오 비용이 낮다. 따라서 청두에서 초기 창업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으며 장기 발전중에서 마침내 준수다(准时达), 쉰차오전매(新潮传媒), 1919 주래이즈공(1919 酒类直供), 쥐마물류(驹马物流)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이 나타났다.

느린 속도에 시행 착오 비용이 낮아 창업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얇은 얼음과 같은 창업가 입장에서 때때로 청두의 느린 속도가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느린 생활리듬 하에 청두의 창업 문제 출현

만약 당신이 도시를 찾는데 느림의 미학을 갖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청두는 미식, 풍경, 인문으로 인해 그 리스트에서 앞 순위에 놓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창업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 청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만큼 좋지는 않지만 새로운 1선 도시 중 적지 않은 자원의 이점을 가진

도시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어느 산업에 종사하든 청두는 이와 같다는 것이다. 헤드 기업 효과는 없지만 늘 괜찮은 기업이 있어 당신으로 하여금 크게 실력을 펼쳐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청두 창업의 명백한 문제는 이 생활리듬에서 비롯된 것인데, 생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더라도 압박이 적으며, 신생 기업의 경우 고난을 극복하려는 집단 정신이 부족하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동동싼웨이(动动三维)는 시각 인터랙티브형 창의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브랜드 창의성, 마케팅, 시각적 상호 작용을 위한 원 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7 년 이 회사는 A 라운드 파이낸싱에서 수천만 위안을 받았다.

처음 자금을 획득했을 때 청정(程正)은 CEO로서 동동싼웨이가 고속으로 발전을 시작하기를 희망했다.

청정의 관점에서 인터넷 경쟁은 전국적인 경쟁으로, 북경 상해-광저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과 대비할때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청두의 스타트업은 정보 지연과 고객 민감도 부족 문제에 직면한다. 초기에는 청두에서 경쟁이 치열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우수한 회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경쟁에 늦게 되면, 청두 기업들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의해 추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두의 융자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청두의 융자 데이터가 엔젤 라운드와 시드 라운드에 집중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엔젤 라운드 및 시드 라운드 파이낸싱은 총 527 개로 전체 파이낸싱 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A 라운드 파이낸싱건은 20 % 미만으로 144 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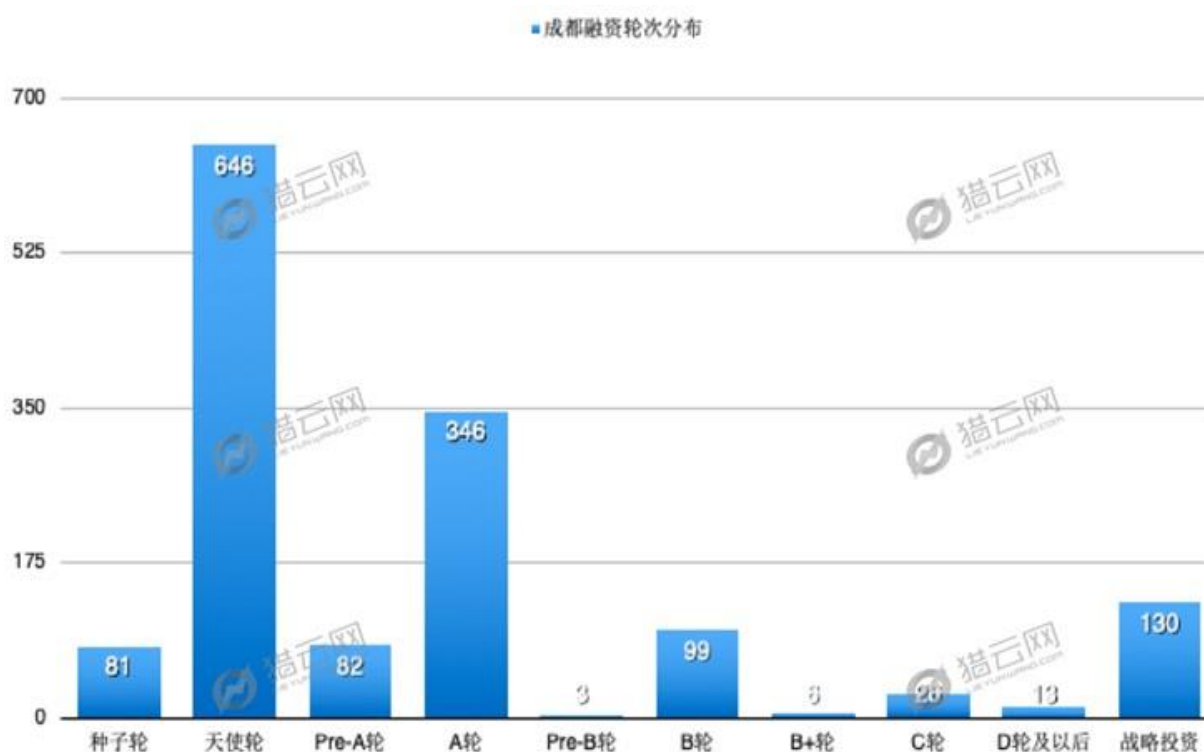


표 2) 리에원왕(猎云网)이 치차차(企查查)데이터를 통해 자체 정리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정은 자금 조달 후 즉시 회사의 주말 야근 제도를 제정하고 전체적으로 근무 강도를 높였다. 그러자 많은 직원들이 적응할 수 없다고 이직을 선택했다.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두 창업가가 창업한 청팅윈보안(青藤云安全)은 최초 베이징에서 창업했고 오히려 2017 년 연구개발센터는 우한으로 옮기고 광구에 '제 2 본부'를 설립했다. 장강일보 보도 중에 창립자 장푸지(张福直)는 말하길 청두 출신으로서 자신의 고향을 고려했지만 청두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직업 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부족하여 결국 포기했다고 했다. 이번 주에 이 기업은 3 억 인민폐 B + 파이낸싱 라운드를 완료했다.

또한 청정은 청두에서 중간 단계 및 후기 단계 회사가 용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를 언급했다.

Lieyun.com 은 투자계에 의해 표시된 중국 투자 기구의 지역 분포를 계산했으며, 쓰촨성본토 지역 투자 기관의 수는 중국 전역에서 10 위로 그 중 광둥성 3628 개, 베이징 3622 개, 상하이 3295 개, 상하이 1511 개, 저장성 1511 개, 장쑤성 1045 개, 복건성 424 개, 산둥성 370 개, 홍콩 347 개, 쓰촨성 342 개사를 차지했다.



표 3) 리에윈왕(猎云网)이 치차차(企查查)데이터를 통해 자체 정리

우리는 청두 본지역 투자 기관의 자원이 약하고 여기에도 적지 않은 정부 주도의 자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도로 청두의 전체 투자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지역 기관의 참여는 거의 없다.

많은 창업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Lieyun.com 에 공개했다. '오랜시간 후 발견하게 되는데 다양한 로드쇼와 벤처 캐피탈 컨퍼런스에 오는 투자 기구가 항상 그 몇 개라는 것을, 심지어 투자자의 안면도 익히게 되고 서로 잘 알게 된다. 90 %의 창업가 로드쇼가 모두 투자 의향단계에 멈춰 있다.'

현지 투자 기구는 부족하고 많은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베이징과 상하이로 가야하는데, 한 창업가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 한 달에 적어도 3-5 회 베이징으로 갔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팀을 외지로 이전한 경우도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베이징과 상하이에 지사 또는 마케팅 부서를 설립하여 투자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동동싼웨이는 초기 청정 자신이 모은 200 만위안 초기 자금외 나머지 투자측은 모두 외지 투자기구다. 청정은 용자를 협의할 때 투자자들이 청두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왜냐하면 청두 비용이 비교적 낮지만 청두의 전체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창업기업이 더욱 효율적이라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위기감 외 청두 창업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

블랙홀 투자(黑洞投资) 합작파트너인 양롱(杨蓉)은 지미과기(极米科技) CMO 를 역임했었고 지금 청두와 베이징 양쪽에서 뛰고 있다. 그녀는 청두 직원은 이동성이 낮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청두의 지미에는 5 년이상 된 오래된 직원이 아주 많다. 청두의 환경은 순수하고 외부 세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집중하여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물가, 인건비가 낮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처럼 많은 유혹, 큰 스트레스, 직원 이직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양롱은 청두에서 최고급 인재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청두는 상응하는 인재가 적고 베이징, 상하이와 자주 합작해야 한다고 했다.

청두는 서부의 절대 중심지이며 청두에는 사천대학, 남서교 교통대학, 전자 과학 기술 대학, 서남재경대학 등 전국 1 류의 28 개 4 년제 대학 인재가 공급된다. 따라서 청두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인재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스타트업 팀에는 고급 인재가 필요한데 청두에는 이러한 점에서 명확히 부족하다.

유료 지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샤오마위(小马鱼)는 대량의 운영인재와 접촉했고 적지 않은 청두기업으로부터 인재 수요를 접하고 있다. 그녀는 청두는 운영 인재에게 적합한 도시이지만 중급에서 고급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두의 많은 창업가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인재 훈련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량의 훈련과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관련 인재를 소개하는 것도 주요 트렌드가 되었다. 그러나 샤오마위는 청두로 돌아온 인재의 솔직한 의견을 들었는데 청두의 리듬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말했다. 한 번의 회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몇 번의 식사와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을 걸려 한다고 하며 이러한 느린 속도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청두 알리바바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청두로 돌아온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 (친척, 친구, 직장에서 업무를 맞춰야 하는 파트너와 고객 등)과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느린데 알리바바는 역시 그룹의 속도에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샤오마위도 항상 '동화'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유지해 왔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청두 산업의 발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두는 스스로 너무 많은 설계를 하고 있다. 게임, 애니메이션, 의료 미용, 야외 활동, 왕홍의 창업 모두 이곳에서 미래가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나자르의 악마 통장시(哪吒之魔童降世)'크리에이티브 팀의 코코아 애니메이션은 청두에 있으며 MCN 분야에서는 청두의 양파 비디오가 중국의 최전선에 있다. 의학 연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유니콘이 되었다.

청두 정부는 또한 국제 음악 수도 건설, 현대 음악 산업 체인 구축, 세계 대회 만들기, 스포츠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각종체육 대회 유치 등 많은 표지가 되는 일에 투자했다.

이러한 상황은 청두가 아직까지 절대적인 표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룽은 '청두가 완전한 산업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산업생태계 의존이 강한 기업은 청두에 올 수 없다'고 여긴다.

선보의 관점에서 구동(咕咚)이 현재 규모에 이르러, 더욱 필요한 것은 산업의 결집 효과이며, 이는 비스타트 업에게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샤먼과 천저우에는 스포츠 장비에 종사하는 많은 중국 기업이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는 주로 광저우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두에는 이러한 산업 효과가 누락되어 있다.

용자 데이터는 현재 청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지는 아마도 '문화 혁신의 도시'일 것이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창업프로젝트의 우수점은 있기는 하지만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

분야 분포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기업 서비스, 의료 건강, 하드웨어, 전자 상거래, 금융, 생활 서비스, 교육 훈련, 부동산 가구, 자동차 교통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10 개 산업이다.

청두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비록 250 개의 용자동태에서 1 위로 총용자 건의 24%를 차지했지만 장점이 없다. A 라운드 후 기업 비율에서는 의료건강이 25 개로 1 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문화 엔터테인먼트이다.

선보는 '청두는 현지 업계 리더 또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이 회사의 자본 운영 및 산업 레이아웃을 통해 진정한 시스템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알리바바가 태어난 항저우 (Hangzhou)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절강 기업가에 의존하여, 최근 몇 년간 인터넷 창업 유행에 기반을 둔 하이캉웨이시(海康威视), Alibaba 와 같은 글로벌 그룹을 만들었고 께투이(个推), 두이바(兑吧), 원지(云集), 51 신용카드(51 信用卡) 등 상장에 성공한 유니콘 기업들이 있다.

청두에 상징적인 산업이 있다면 청두의 브랜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청두 프로젝트는 더 많은 외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외부 노출을 필요로 한다. 현지 기관의 개발에 관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헤드급 기업과 정부의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청두의 미래

청두의 느린 속도는 도시에 침투해있고 대부분의 회사와 사람들에게도 퍼져 있다. 저렴한 시행 착오비용과 직원의 안정성은 청두가 청두 창업가들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지만, 청두는 또한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도전을 안겨준다. 때로는 일부 창업가들도 시야가 충분히 높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청두의 많은 창업가들은 글로벌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어느 정도사에서 청두 신생 기업의 발전을 제한한다. 동시에 청두 창업가들간의 연동성이 부족한데 이렇다면 청두에 대한 외부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청두의 창업가와 창업 정신은 놀라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끌어 왔다. 2019 후룬 글로벌유니콘리스트(胡润全球独角兽榜)에서 청두는 4 개 기업이 올랐고, 전세계 18 위, 전국 7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6 위는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선전, 난징, 광저우다.

청두의 느린 속도에도 여전히 많은 창업가가 속도를 높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전체 인터넷 산업은 변환에 직면하고 있으며 청두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업과 직면할 때 실제로 큰 이점이 없으므로 온기를 높여야 한다. 이 팀은 정부, 투자 기구, 창업가 및 인터넷 종사자의 공동 건설을 요구한다.

청두에 점점 더 많은 창업가와 인재가 진입하면서 청두는 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훈련시킬지에 대한 난제에 직면해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방향설정과 지원은 청두의 미래 산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 기관의 자금은 창업가 전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가의 자기 편달이다. 이 느리게 진행되는 도시에서 자신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청두의 모든 창업가에게 영원한 명제이다. 결국 청두의 창업가 수준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31) IBM 과 Daimler 양자컴퓨팅을 이용하여 더 좋은 배터리 개발 — 인터넷분석샬롱(互联网分析沙龙)제공



사진 1) 출처: 인터넷분석샬롱(互联网分析沙龙)

IBM 과 Daimler 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화학을 사용하여 리튬-황 배터리의 화학적 조성을 시뮬레이션하여 차세대 자동차 배터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CES 2020 에서 이 소식을 공유할 때, 이 기업들은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배터리가 현재 널리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Daimler 의 연구원들은 양자 컴퓨터가 배터리 속의 화합물 기본 행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있다.

분자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화합물의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태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자 내의 모든 입자 (전자와 같은) 사이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 해야한다. 분자와 그 환경이 더 크고 복잡할수록

이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분자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Janet Garcia 고급장리는 '양자 화학 시뮬레이션 연구 논문의 주요 제품은 리튬-황 배터리다'며 IBM 연구소의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는 팀과 함께 IBM 연구이론을 썼고, 쌍극자 형태의 지면 상태 에너지 및 분자를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혔다. (리튬-황 배터리에서의 작동은 리튬 하이드라이드 (LiH), 황화수소 (H₂S), 리튬 황화수소 (LiSH) 및 필요한 제품은 리튬 황화물 (Li₂S).)

또한 이 팀은 양자 하드웨어에서 IBM Q Valencia 에서 4 큐비트를 사용하여 LiH의 쌍극자 모멘트 계산을 처음으로 시연했다.

현재 양자 컴퓨터 잡음이 많은 중간 규모 양자 (NISQ) 시스템은 불완전한 큐비트를 사용하여 환경 노이즈의 영향을 받으며 단절된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단기간 동안 실행할 수 있다.

퀀텀 컴퓨터는 노이즈가 있는 큐비트를 결합하여 완벽한 큐비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약 1,000개의 노이즈 큐비트가 좋은 큐비트로 변환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IBM 연구원은 노이즈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이즈를 증폭 측정하여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다.

CES 2020에서 IBM은 Delta와 Anthem을 포함한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를 위한 여러 새로운 파트너를 발표했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중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북 발간 (Block Media, 2020.01.14)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 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이드 두번째 인쇄본은 200 쪽 분량에 23 개의 소주제들로 구성됐다.

소주제들 중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기술적 측면과 함께 통화 시스템, 세계 금융 그리고 암호화폐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특히 내용 중에는 '디지털 통화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라며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포테이토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이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 책이 지난해 가을 공식화 한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 중국이 암호화폐를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 (Asia Times, 2020.01.15)

중국 정부는 일반 국민이 암호화폐를 쓸 수 없게 만드는 등 암호화폐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애쓰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포용에 앞장서며 블록체인을 비판하는 글들은 검열하는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를 제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최근 '포브스'가 보도했다.

이는 분명 이상하고 모순적인 정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은 전면적으로 블록체인을 포용하려고 하는 듯하면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포브스'는 중국이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했다가 자칫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 이처럼 암호화폐 사용을 두려워한다고 보면, 중국의 '이상한' 정책에 수긍이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암호화폐가 상징하는 '개인적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에 블록체인이 표방하는 원칙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정치인들이 원하는 통제와 철두철미한 추적 및 디지털화 등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만들어서 풍부한 금융 자료집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자료집에는 소비되는 식품과 구매한 장난감 종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차주 찾는 서점의 위치, 사람들의 여행 계획, 그리고 친정부나 반정부 성향의 잡지 지지자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중시하는 '프라이버시'는 중국의 정체성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3. 알리바바그룹,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련 미국 특허 2 건 획득 (해외경제정보, 2020.01.15)

중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도록 설계된 미국 특허 2 건을 획득했다.

하나의 특허는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가 노드에 추가될 때 블록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사용해 노드의 업데이트 확인값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특허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는 특정 시간 동안만 물리적 시계 또는 논리적 시계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타사 지불 플랫폼 서버, 국내 은행 서버, 외국 은행 서버 및 멤버 장치로 사용되는 여러 사용자 노드 장치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일 수 있다.

블록체인 운영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외 결제 및 자산 이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참고로 알리바바그룹은 블록체인 특허를 개발하는 글로벌 3 대기업 중 하나이다.

4. 미디움, 중국 블록체인 시장 겨냥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집중 (천년일보, 2020.01.17)

하드웨어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미디움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블록체인 시장을 겨냥해 기술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미디움은 최근, 중국 교육부와 학적시스템 블록체인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16일~17일 양일간 중국 사천성 진장호텔에서 열린 APEC 중소·중견기업(SME) 디지털 경제 개발 컨퍼런스 및 2019 중국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참가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청두시 인민 정부, 쓰촨성 경제 정보 기술부, APEC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 센터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중국 알리바바 수석 부사장 펑리(Peng Lei), 중국 산업 기술부 장관 리 이중(Li Yizhong), 쓰촨성 인민 정부 부국장 예딩다(Ye Dingda), 등 약 400여명의 중국 지도자와 정부 부서 및 산업 기관, 기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중국 알리바바 수석 부사장 펑리(Peng Lei) 등이 디지털 경제 혁신과 경제 네트워크 등 산업기술의 미래 비전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One Belt, One Road'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중소 기업의 융합의 밀도 있는 추진을 협의했다.

이 행사에서 미디움의 박윤성 CSO는 블록체인 초고속 처리 가능성과 진화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김판중 의장은 '미디움의 초고속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중국 당국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중 모바일 유통사, 미국 스타트업 지분 인수하며 블록체인 사업 진출 (CoinDesk, 2020.01.17)

디폰(D.Phone)의 자회사 디신통 테크놀로지 그룹(Dixintong Technology Group)은 중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유통업체 중 하나이다. 최근 디신통은 몬순 블록체인(Monsoon Blockchain)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블록체인 산업에 발을 들였다.

두 회사는 지난 7 일에 구매 계약에 서명했다면서도, 계약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다만, 계약 건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의하면, 디신통은 문순의 기업가치를 수억 달러로 평가했다고 한다.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중국이 기업용 블록체인과 새로운 기술로서 블록체인 진흥을 언급하는 시점에 맺어져 더 주목을 받는다. 디신통의 회장이자 창립자인 류둥하이(류동하이)는 이번 계약을 통해 블록체인과 5G,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융례를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3 년 핸드폰 유통업체로 사업을 시작한 디폰은 2014 년 홍콩에서 상장했다. 레노보 그룹(Lenovo Group), 치후 360(Qihoo 360), 차이나텔레콤(中国通信), TCL 코퍼레이션(TCL Corporation) 등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알리바바의 주요 이커머스 경쟁자인 징둥닷컴(JD.com)은 지난 7 월 디신통 지분 9%를 3 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디신통의 시가총액은 약 2 억 달러 정도다.

2018 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디폰은 중국 전역에 있는 1500 개 매장에서 거의 900 만 대의 핸드폰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20 억 달러의 매출과 4600 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

디폰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월에 중국의 텐진시 정부와 협약을 맺고 5G 와 사물인터넷을 활성화한 산업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투자액은 모두 30 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한 뒤 여러 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치솟았다.

‘정부에서 이 정도로 기술을 장려하면 모든 것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한다.’

– 도널드 바실리, 문순 블록체인 CEO

중국 최대 통신 서비스 제공사인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과 차이나텔레콤은 국가 주도 블록체인 인프라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BSN,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지난해 전국 각지로 5G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5G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G 기기가 필요하다. 중국 내 대부분 통신사는 5G 데이터 플랜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상하이 정부는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상에 탈중앙화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광둥 지방에서는 중소기업이 상업 은행에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최대 테크 기업도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정부의 지지가 있으면 블록체인 채택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문순 블록체인과 협약을 맺으려는 가장 큰 이유다.’

– 류둥하이 회장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

바실리에 따르면, 문순 블록체인은 스마트계약을 사용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와 잠재 고객에게 더 효율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토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실리는 데이터 센터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순 블록체인은 서로다른 가격을 통합하고 세계 각지 데이터 센터 정보를 수집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반면, 컴퓨팅과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요건을 네트워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바실리는 블록체인 기반 P2P 프로토콜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를 찾아준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계약을 사용하기 위해 법정화폐로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을 구매해야 한다. 토큰은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되지만, 규제 기관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면 앞으로 토큰 판매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문순 블록체인은 IBM, 오라클, 알리바바 등 굴지의 IT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한 경험이 있다. 바실리 또한,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공사인 퓨전-io(Fusion-io)와 바이올린 메모리(Violin Memory)의 최고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수십억의 사용자 기반

문순 블록체인의 고객이 대부분 기업이기는 하지만, 디신통과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프로토콜 사용자를 늘릴 수도 있다.

디신통은 라이선스를 획득한 서비스 운영사로 모바일 기기 외에도 데이터 플랜 등 통신 서비스도 판매한다.

바실리는 디신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문순이 중국 내 사용자 십수억명에게 접근권을 주고,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규모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순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각각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고유한 신원을 할당할 수 있다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 더 저렴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의 데이터는 가공되어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사람들이 5G 서비스나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4G 네트워크에서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창출해내게 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훨씬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있는 사용자의 규모를 고려하면 2 천만 명 정도는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과 애널리틱스가 필요하다.’

- 도널드 바실리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11)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진짜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은 국가의 안전검사를 받고 세상에 나온다. 많은 소비자는 국가의 안전검사를 신뢰하여 사용하는데, 국가의 안전 검사가 신뢰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겨울철 건조한 방안의 습도를 보충하기 위하여 가습기를 사용한다. 가습기 물통에 담겨진 물은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하여 살균제로 넣어 물의 청결을 유지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제품들

소비자는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인증한 안전한 살균제를 구입하여 물 통 안에 넣었다. 이 살균제는 인체에는 안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었다. 이 살균제를 넣은 가습기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는 죽음의 수증기였다. 이것을 마신 임신부와 유아가 연속적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자 수가 무려 239 명, 심각한 폐 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 명(2015 년 집계된 수)에 달하였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

국가가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에서 일어난 말도 안되는 참사이다. 국가가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곳이 많다는 반증이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가 있다. 식당에서 식사 전 손을 닦기 위하여, 혹은 더운 날 땀을 닦기 위하여, 또는 아기들의 배변 후, 항문 부분을 물티슈로 닦는다. 간편하다.

물 티슈는 티슈 안에 물이 젖혀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쉽다. 모든 물티슈는 부패를 막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방부제를 넣는다. 그걸 넣지 않으면 물티슈는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다.

물티슈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가 국가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더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 한국 소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물과 티슈가 분리되어 있는 티슈

위의 그림은 3 번이나 정제한 100%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다. 수술 시에 사용하는 정제수라고 한다. 티슈와 정제수가 분리되어 있다. 사용할 때 정제수를 티슈에 부어 물티슈를 만들어 사용한다.

순수한 물은 공기에 노출하면 자연히 부패한다. 그래서 개봉을 한 후 바로 사용하고 폐기하라고 주의를 준다.

소비자가 사용 시 정제수를 건티슈에 부어 넣어야 하니 불편하다. 정제수와 티슈를 분리하여 만들어 가격도 비싸다. 그러나 신생아를 다루는 산부인과와 엄마에게는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하루에 10 번 이상 대변을 보는 아기에게 수시로 항문을 닦아주어야 하는데 단 한 방울의 방부제나 기타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티슈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국가가 정한 안전 규격을 준수하였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그러하지 않다. 소비자는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을 원한다.

디자인에서 '간편'은 좋은 디자인이 되는 요소이다. 소비자는 간편을 원하지만, 신생아를 위한 제품에서는 완벽한 안전한 제품을 원한다. 분리형 물티슈는 이런 소비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였다.

디자인은 유별난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품화하는 것이다. 좋은 디자인은 소비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아픈 경험이 분리형 티슈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상품을 살펴보면 더욱 완벽함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 많다.

사장님에게는 기회이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완전한 제품을 만들면

사장님에게는 다시없는 기회이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완벽 완전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좋은 제품,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트럼프정권, 이쯤해서 중국에 '커다란 포상'을 주는 진짜 이유

(겐다이(현대)비즈니스, 2020.1.16)



사진 1)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환율조작국 인정 해제라는 '포상'

1 월 13 일 미 재무부는 상반기에 한번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공표했다.

예정된 10 월에서 3 개월 늦은 공표이다. 이미 보도된 대로 작년 8 월에 결정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인정이 해제된 것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것이 미중 무역 협상의 제 1 단계 합의의 서명에 맞춘 움직임임에 틀림없고, 본래는 객관적 기준에 맞게 운용되어 온 환율 정책 보고서가 매우 정치적인 운용을 받은 감이 강하다.

제 1 단계 합의에서는 중국의 통화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환율 조항이 포함되게 되어 있으며, 조작국 지정 해제는 그 '포상'이라고 정도 일 것이다.

무엇보다, 조작국 인정을 벗어나도 '감시 명단'으로 돌아갔다 정도이기도 하며, 이번에는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라고 하는 계속 감시의 9 개국과 함께 스위스가 더해져 총 10 개국이 감시 대상국이 되었다.

참고로 2016 년 4 월 오바마 정부가 감시 목록을 도입했을 때 감시 대상국은 5 개국(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밖에 없었다.

4 년이 채 안되어 감시해야 할 나라가 배로 되었다는 사실은 대미 무역 흑자를 안고 있는 나라가 늘어난 것을 대체로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16 년 4 월 보고서에서 기준치인 대미 무역 흑자(200 억달러)을 넘던 것은 7 개국(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이탈리아, 인도)에 불과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12 개국으로 늘어났다. 달러화 강세 국면의 지속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미 재무부의 주장은 합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사진 2)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달러매도 개입의 재촉인가?

의외로 여겨지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감시 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접근방식이다.

달러 강세 지속과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상'이라는 것은 보고서 첫머리의 'Executive Summary'에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에 인용해 두고싶다(번역은 필자). 아래의 기술은 'Executive Summary'에서 2 차례나 나온다(첫번째는 통상의 요약으로서, 2 번째는 소제목 『Treasury Conclusions Related to China』 속에 나온다).

〈과거 2~3 개월간에 있어서 집중적인 무역·환율 협상 결과, 몇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와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및 기타 변화를 요구하는 제 1 단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앞두고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enforceable commitments)를 했다. 중국은 또 환율이나 대외수지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러한 문맥아래, 중국은 이제 현시점에서는(at this time), 환율조작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미 재무부는 결정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서 의도적인 위안화저가 유도는 하지 않겠다'고 중국 측이 다짐했기 때문에 조작국 인정을 해제했다는 메시지다.

덧붙여 별단락인 'Treasury Conclusions Related to China'에서는 보다 상세한 기술을 볼 수 있고, 중국은 항상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다짐되고 있다.



사진 3)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위안화에 얽혀서는 앞으로 한바탕...!

예를 들어, 개입 실적 공표에 관해서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이것은 제 1 단계 합의에 의해 공표에 이르는 모양이지만).

위안화매도 달러매수 개입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인민은행(PBoC)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되고 있지만, 국유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은 있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개입 실적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PBoC 및 국유 은행을 통한 직접·간접적인 개입 규모를 추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 1 단계 합의를 통해서 중국 측이 투명성 향상에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는 강한 요청이 있었던 흔적이 엿보인다.

또, 그 이외에도 위안화의 대달러 기준치를 통해서 거래 밴드를 설정하는 행위가 위안화 시세 조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명되고 있어, 개입 실적 공표와 함께 위안화 시세 개혁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는 해도, 해외여행자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 흑자는 상당히 상쇄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는 상승 일변도가 정당화되는 통화가 아니라 때로는 하락도 펀더멘털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텐션을 근거로 하는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허용하는 분위기는 없고, 위안화 관련에서는 향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달러매도 개입 촉진... ?

대체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화 강세를 혐오하는 속이 들여다보였다.

서두의 'Executive Summary'에서는 언급한 중국에 대한 기술에 이어, G7/G20 합의를 꺼내어 환율 조작이 금지되고 있음을 새삼 강조하는 단락도 있었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이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환율 개입의 규모나 빈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인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비아냥을 담은 한 문장이다.

요컨대, 달러화 강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 매도·달러 매수 개입을 하지 않고도 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컬에 이어 보고서에서는 '관련된 상황하 자국 통화 약세(달러 강세)의 경우에도, 자국통화강세(달러약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율 개입을 대칭적으로 운용할지를 미 재무부는 감시한다'는 구절이 적혀 있다.

이것은 매우 신경쓰이는 한 문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기술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 달러 매수 개입을 한다면 달러화 강세 국면에서는 달러 매도 개입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생각된다.

작년 여름 이후, 미 재무부가 가지는 외환안정기금을 통한 미국의 달러 매도 개입 여부가 화제가 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논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당시(작년 8월말), 무뉴신 미 재무장관은 달러 매도 개입에 대해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래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함축을 보인 경위가 있다. '대칭적인 개입 운용(자국 통화 매도 개입과 자국 통화 매입 개입의 병용)을 재촉하는 한 문장은, '미국이 손을 움직이지 말고, 달러 강세로 이득을 보고 있는 여러 나라가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이며, 너무나도 트럼프 정권다운 주장이다.

원래 정치적인 어필밖에 없었다

불과 5개월로 조작국 인정이 해제된 것은 인정 자체가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정치어필 밖에 없었던 것의 증거이다.

원래 환율조작국이나 감시리스트 대상국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은 무역 수지·경상 수지·환율 개입에 관해, 2 개를 채우면 감시 리스트(즉 조작국 리치), 3 개를 채우면 조작국 인정이란 룰이다.

중국은 1개(대미 무역 흑자)밖에 되지 않음으로 본래는 감시 명단 대상 국가 밖에 안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에 있어서 거대하고 걸맞지 않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감시 리스트에 게재되어 왔다.

이어 지난해 8 월의 조작국 인정은 이 시기에 발생한 '1 달러=7.0 위안'돌파에 있고, 확실히 그 움직임은 조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술한 것처럼 위안화는 하락해도 그리 이상한 통화가 아니다. 대체로 보고서는 '중국만은 다른 기준(<정치적 의도>)으로 정한다'는 것이 앞으로도 정상화될 것 같은 분위기는 있다.

환율 정책 보고서 발표 시점이 본래의 4 월 10 월에서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이나, 지난해의 조작국 인정 자체가 보고서 발표와 상관없는 시기에 내려진(지난해 8 월 보고서는 나오지 않음) 것 등을 볼 때마다 이제 보고서는 과거 같은 형식에 얽매인 정례 보고가 아닌 트럼프 정권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보고서의 공표 시기가 상반기에 1 번(4 월과 10 월)인 것과 감시 리스트에 게재에 있어서 3 기준(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200 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2%이상, 자국 통화 매도 개입이 6 개월간 GDP 대비+2%이상)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시장 참가자는 보고서 내용에 몸을 움추리고, 음미하여 그 함의를 포함시킨다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언제 발표될지 모르고, 운용의 재량도 대통령에 달려버린 지금, 다루기 어려운 재료가 된 감은 있다.

달러매도 개입의 유무가 재차 논쟁화될까?

그런 가운데 굳이 이번 보고서에서 단 하나 읽어 내야 할 정보가 있다면 트럼프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달러화 강세 시세에 민감해져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술한 달러 매도 개입을 재촉하는 듯한 기술은 염두에 두고 싶은 한 문장이다.

작년 여름에 이목을 끌었던 달러 매도 개입에 대한 우려는 그 주체가 미국 재무부인지 해외금융당국인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다시 주목을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

2. 도쿄올림픽 부의 유산도 미지인 채... 2030 년 삿포르 유치로 내 달리는 올림픽 병의 무서움 (닛칸 겐다이 디지털, 2020.1.16)



사진 1) 출처: 교도통신사, 72 년 삿포르 올림픽 70 미터급 점프에서 시상대를 독점한 일장기 비행대. 금메달의 카사타니유키오(중앙), 은 콘노야끼쓰구(왼), 동 아오지세이지.

이제 그만 적당히 하면 어떨까?

올해 7 월 드디어 도쿄올림픽이 개막한다. 작년 가을, 막장극을 벌인 마라톤, 경보의 샷포로 이전 문제는 마라톤 코스에 대해 조직위원회와 세계 육상연맹의 의견이 부딪혔다. 결국 오도오리 공원을 시발착점으로 하는 변칙 3 바퀴 코스로서 대충 정해졌다.

그 무대가 되는 샷포로는 2030 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아키히로 카츠히로 시장은 11 일 스위스 로잔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바흐 회장을 만나 회담을 하고, 1972 년 대회 이래 개최 의욕이나 능력을 어필. 이에 따라 바흐 회장은 '운영 능력 등에 의심이 없다. 시장의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0 년 올림픽 유치에 손을 들고 있는 곳은 샷포로 외에 솔트레이크시티(미국)와 바르셀로나(스페인)인데, 샷포로가 절대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6 년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코르티나단페쵸의 분산 개최가 결정되어 있고, 4 년 후의 대회도 유럽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도 28 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이 있다. 샷포로는 26 년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18 년 9 월에 발생한 이부리 동부 지진의 피해가 커서 부흥을 최우선시하여 포기한 경위가 있다. 여기에도 도쿄올림픽 마라톤과 경보대회장 이전을 전격 수용한 것도 IOC 의 좋은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은 특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국가)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22 년 대회에 입후보해, 최종 후보에 남아 있던 오슬로(노르웨이)는 거액의 개최 비용을 이유로 단념했다. 과거의 동계올림픽에서 368 개(금 132, 은 125, 동 111)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스키왕국의, 예상 못한 입후보 취소에 IOC 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14 년 12 월의 IOC 총회에서 결정한 '어젠다 2020'에서 복수 도시나 국가에서의 분산 개최를 인정한 것은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는 도시의 감소를 피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다.



オリンピック立候補都市の数(2000年以降)

夏季		冬季	
00年シドニー	5	02年ソルトレークシティ	4
04年アテネ	11	06年トリノ	6
08年北京	10	10年バンクーバー (ベルンは途中で取り消し)	7
12年ロンドン	9	14年ソチ	7
16年リオデジャネイロ	7	18年平昌	3
20年東京	6	22年北京	2
24年パリ	2	26年ミラノ/コルティナ ナダンベッツォ	2

(数字は開催国含む)

사진 2) 출처: 닛칸겐다이, 샷포로 아끼모토 시장(중앙)과 회담(왼쪽은 야마시타 JOC 회장)

올림픽 입후보도시 수(2000 년 이후) 숫자는 개최국 포함

하기**00 년 시드니 5****04 년 아테네 11****08 년 북경 10****12 년 런던 9****16 년 리오데자네이로 6****20 년 동경 6****24 년 파리 2****동기****02 년 솔트레이크시티 4****06 년 토리노 6****10 년 밴쿠버 7****14 년 소치 7****18 년 평창 3****22 년 북경 2****26 년 밀라노 2****환경파괴와 올림픽이권을 둘러싼 문제**

일본은 과거 동계올림픽에서 곤욕을 치렀다. '쓰츠미 요시아키와 올림픽'의 저자인 스포츠 저널리스트 다니구치 겐타로씨는 말한다.

"98 년의 나가노 올림픽은,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한 쓰츠미 요시아키씨(당시의 세이부 철도 그룹 오너)의 독식이었습니다. 나가노에는 보유한 스키장이 다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이권을 위해서 올림픽을 이용한 것입니다. 도로가 생기고 신칸센도 지나 세이부가 개발에 주력하던 카루이자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편, 올림픽 후는 봅슬레이·루지의 회장 '스파이럴'은 연간 유지비가 2 억엔 이상 들어, 나가노현이나 나가노시 등은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연파괴와 부의 유산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98 년 나가노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회계장부류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수상쩍음을 느끼지만, 그 금액도 포함하면 나가노 올림픽 관련 경비는 2 조엔 가까이 된다(현지 관계자)는 소리도 있다. 나가노시의 부채(기채)만도 이자를 넣어 약 695 억엔. 상황에 20 년의 세월이 걸렸다.

'약 2 주간의 이벤트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개최하는 메리트가 적다는 것은 많은 나라가 알고 있으며, 바흐 회장도 올림픽의 지속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동계올림픽은 적설이나 알파인 경기에는 알맞은 표고차이의 산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도시도 한정된다. 삿포로는 72 년 올림픽에서 에니와다케를 대량의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하고 활강코스를 만들었다. 그 반성도 없이 또 올림픽을 유치하는가? 삿포로에는 활강 코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산(표고차 800m 이상)이 없다. 이번에는

니세코와 분산개최로 한다고 한다. IOC 에 있어서 개최국의 자연파괴 따위는 상관없다. 바흐 회장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타니구찌씨)

유럽의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에 소극적으로 된 요즘, 동계올림픽은 극동의 일본, 중국, 한국에서 순회개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다니구찌씨의 지적은 전혀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다.

스포츠라이터 츠다토시키씨도 이렇게 말한다.

'지난번 도쿄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처럼, 일본 경제는 상승이 아니다. 올림픽은 이제 그만 다른 곳에 세금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도쿄 올림픽 후의 시설 이용이나 유지비 문제, 경제 침체 등도 염려되고 있다. 문부과학성, 스포츠청, JOC 등 관민일체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일본이 향후의 올림픽 무브먼트에 어떻게 관여해 갈 것인지, 방향성을 결정하면 됩니다.

삿포로, 홋카이도는 도쿄와 달리 경제적 뒷받침이 없고,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나라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달콤한 검증으로 입후보하면 후세에게 화근을 남기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5 번째 올림픽 개최는 정말 필요한지, 국민적 논의가 요구되지만 올림픽을 좋아하는 국민이니깐요. 다시 삿포로 올림픽에 일직선이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OC 에 있어서, 역시 일본은 특상의 '고객'이다.

3. 시주석 '국민' 방일의 시비 일중관계에 박힌 '4 개의 가시' 뽑는 것이 우선 (산케이신문, 2020.1.18)

일본의 논의

정부가 올 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민'으로 초청하는 계획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중국 공선公船의 잦은 영해침입과 근거불명의 일본인 구속 등의 과제 해결의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참의원 사토 마사히사 씨와 도쿄대 교수 다카하라 아키오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사토씨 '먼저 센카쿠등 해결을'

--시 주석을 국민으로 영접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중의 정상이 현안을 논의하고 장래를 향한 큰길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국민 사이에도 시씨의 방일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국민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은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 폐하의 손님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손님으로 영빈관에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황궁에서 바로 수상이 가장자리에 선 가운데, 폐하 스스로 맞이하는 것으로,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국민으로 맞이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작년 9 월 언론 NPO 의 조사에서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가진 일본인은 15%,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84.7 퍼센트에 달했다.

'레이와 원년(2019 년) 10 월의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한 사람은 22.7%,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74.9%로,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시씨를 국민으로 맞이하는 것에 손들어 찬성하겠는가? 도저히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으로 맞이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으로 맞이하려면 환경 양성이 필요하다. 중일관계에 꽃힌 4 개의 가시를 빼든지, 작게 해야한다. 가시 첫번째는 중국 함선에 의한 센카쿠 열도(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주변 접속 수역에서 항행 및 영해 침입이다. 두 번째로 일본인 구속 문제가 있다. 최근 몇년간 15 명이 잡혔고, 그중 5 명은 귀국했지만, 아직도 10 명이 구속되어 있다. 1 명은 공판이 아직이지만 나머지 9 명 중 7 명의 형이 확정됐다. 그들의 구속 사유나 판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는 기본적 인권의 관점에서도 이상하다’

--세번째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 후의 일본산 식품·사료의 수입 규제 문제다. 일본측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니가타현산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미야기 등 10 개 도현의 식품·사료의 수입을 모두 정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의 대중 감정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4 번째가 홍콩, 위구르 등의 인권문제다’

--홍콩이나 위구르, 티베트 등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국제문제이다. 홍콩 시위에서 경찰은 위쪽으로 쏘아 할 최루탄을 시민에게 쏘거나 경고사격조차 하지 않고 무방비 학생을 쏘는 등 과도한 단속을 벌였다. 미영 불독은 비난 성명을 냈다. 일본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정부가 하나가 되어 가시를 뽑아야 시씨를 국민으로 맞이하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다. (히라다 유스케)

타카하라씨 ‘목적과 격에 맞는 대우를’

--시 주석의 국민 대우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외국 귀빈에 대한 대응은 초청의 목적과 상대의 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중·일의 친선을 돈독히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씨가 국가원수임을 감안하면 국민대우 이외의 선택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국민으로 하진 않겠지만 우호를 돈독히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 영해침입 및 인권침해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국민 초청을 것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나 (중국 공선에 의한)센카쿠 인근 영해 침입의 묵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호친선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과제에 일본측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대학 연구자의 구속도 중국에서는 드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경시하고 일본인들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다. 예의를 갖춰, 하지만 할 말은 한다. 그게 제대로 된 외교다’

--시씨의 국민방문이 우호친선 증진으로 이어지는가?

‘이해부족을 이해한다’는 점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 시씨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방일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나쁜 것은 일본의 책임이다’라는 최근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방도시로의 방문등을 통해서 일본인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룽지 전 총리는 과거 일본 민영방송에 출연해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시씨의 방일을 통해 일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일본이 진행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구상에 중국도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시씨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큰 과제다. ‘인도 태평양’이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와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경쟁에서 협조로’의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 3 국의 중·일

양국과의 경제협력을 편안하게 한다. 또 수역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지나해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조약 체결에 합의한다면 커다란 전진이라고 하겠다'

--환경정비에 무엇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중국과 싸워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본 정부가 방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를 기대한다. 반발의 크기는 높은 관심의 반증이며,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주목받는 가운데 성과를 제시하고 우호친선의 열매를 거두길 바란다(토키요시 다쓰야)

기자의 눈: 일중외교, 길은 험하고

시 주석의 국빈 초청에 관한 견해차는, 시 씨 일본 방문을 센카쿠 인근 영해 침입 등 중일 간에 존재하는 과제 해결의 호기로 해야 한다는 타카하라 씨와, 과제 해결 없이 국빈으로 맞이하기는 어렵다는 사토 씨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의 일본외교는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과제해결을 요구하면서도 해결을 국빈대우 조건으로 삼지는 않는다. 초청 배경에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싶은 경제계의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의견은 초청에 '찬성' 49.0%가, '반대' 37.8%를 웃돈다(동월 실시한 산케이신문사와 FNN=후지뉴스 네트워크=의 합동 여론조사). 그러나 쌍수를 들어 찬성은 아니다.

일본의 대중 접근에 관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미중 대립의 시대에 '일중 신시대'를 지향하는 아베 총리가 가는 길은 평탄치 않다.

4. '일본의 독해력 15 위로 하락'의 의미란? 국제학업성취도조사 'PISA'로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 (AMP, 2020.1.16)



사진 1) 출처: AMP. '일본의 독해력 15 위로 하락'의 의미란? 국제학업성취도조사 'PISA'로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3 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PISA)'. 2019 년 12 월에 최신판(2018 년 조사 분)이 발표되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언론이 그 결과를 보도했다.

이 조사는 각국의 의무 교육 수료 단계에 있는 15 세를 대상으로 '수학적 능력' '독해력' '과학적 능력'의 3 분야의 학습 도달도를 평가한다. 일본은 수학과 과학에서 항상 톱 10 이내를 차지했고, 최신의 2018 년판에서도 수학 6 위 과학 5 위라는 좋은 순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독해력이 지난 8 위에서 이번 15 위로 하락했다.

일본의 독해력은 2000 년 제 1 차 조사에서 8 위였지만, 2003 년 제 2 차 조사 때 14 위로 하락, 이어 2006 년에 15 위로 떨어졌다.

이는 일본 내에서 'PISA 쇼크'로 불리며 문부과학성이 '탈 유토리(여유) 교육' 노선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뒤 독해력은 2009 년에 8 위, 2012 년에 4 위까지 회복. 그러나 이전의 2015 년 조사에서는 다시 8 위로 하락, 그리고 이번 15 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PISA 가 발표될 때마다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화제가 된다.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PISA 의 조사 대상이 되는 나라(2018 년 79 개국)의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 PISA 결과에 따라 각국에서는 교육논란이 일어나, '탈 유토리 교육' 촉진에 기여한 것처럼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진 2) 출처: AMP. 중국 상해 지하철에서 숙제를 하는 학생 (2018 년 5 월)

PISA 의 존재 의의는 학업성취도의 국제 비교에 의해 각국의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표준화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한편, PISA 의 조사 결과는 불완전하며, 그것을 맹신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나 표준화에 의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잃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등 PISA 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포브스지, 워싱턴포스트지 등 다양한 대형 언론에서도 다루어져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PISA 를 둘러싼 찬반 논란. 어떤 논란이 일고 있을까?

PISA, 최신랭킹에서 1 위 독점한 ‘중국도시그룹’

원래 미디어에서 자주 거론되는 PISA 란 어떤 조사인가?

조사 대상 국가의 15 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을 재는 조사. 수학, 독해, 과학 3 분야에서 각각 2 시간의 스스로 기입하는 시험이 진행된다. 복수선택식과 기술식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필기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2015 년부터 컴퓨터 입력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2018 년 조사에서 참가 학생 수는 총 79 개국(OECD 회원국 37 개국 비회원 42 개국)의 약 60 만명. 일본에서는 183 개교에서 약 6100 명이 참가했다. 시험 결과는 평균이 500 점이 되게 계산되어 발표된다. 최신판 랭킹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학 능력의 1 위에는 ‘베이징·상하이·江蘇·浙江’의 중국 도시들 그룹이 올랐다. 이어 2 위 싱가포르, 3 위 마카오 4 위 홍콩, 5 위 대만, 6 위 일본, 7 위 한국 8 위 에스토니아 9 위 네덜란드 10 위 폴란드. 독해력에서도 ‘베이징·상하이, 江蘇·浙江’이 1 위이다. 이하, 2 위 싱가포르, 3 위 마카오 4 위 홍콩, 5 위 에스토니아 6 위 캐나다 7 위 핀란드 8 위 아일랜드, 9 위 한국 10 위 폴란드. 과학적 능력에서도 1 위는 ‘베이징·상하이, 江蘇·浙江’. 이어 2 위 싱가포르, 3 위 마카오 4 위 에스토니아 5 위 일본, 6 위 핀란드 7 위 한국 8 위 캐나다 9 위 홍콩, 10 위 대만.

중국은 예전 상하이를 PISA 의 조사 대상 도시로 하고, 2009 년과 2012 년 2 회 조사에서는 수학, 독해, 과학 3 부문 모두 1 위를 획득. 그 후 2015 년에는 상하이만이 아니라 베이징, 江蘇·浙江을 조사 대상에 덧붙였다. 그러나 이 도시들은 수학 6 위, 독해력 27 위, 과학 9 위로 상하이 단독보다 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됐다.



사진 3) 출처: AMP. 중국 장씨성의 중학교 모습(2018 년 4 월)

‘국제비교’어려운 PISA 조사

PISA 비판의 하나가 그 비교 정합성에 대한 것이다.

원래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한 조사이지만, 위의 랭킹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일부 국가는 국가 전체의 스코어인데 비해, 중국은 도시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 비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의 비교이다. 일정한 표본 수부터 해당국 15 세의 학업성취도는 어떤 것이냐, 국가 전체에서는 어떤 교육 수준인지를 재야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며 기록을 높이 보이고 있다.

포브스지에 기고논문에서 지리전략분석 컨설팅 회사인 Wikistrat 의 시니어널리스트 게리 샌즈 씨가 지적하는 바로는 PISA 조사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상하이나 베이징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학생만 선출되고 있다고 한다.

또 동씨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발각. 지역 의원 온키안 민씨가 이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온 씨가 지적하는 데에는 PISA2015 년 조사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학교의 학생이 부자연스럽게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해 말레이시아에서는 8861 명의 학생이 PISA 조사에 참여. 그 중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2661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중국 15 세 전체의 3%에 불과하다.

2018 년 조사의 3 부문에서 모두 선두가 된 중국 도시 그룹.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이 랭킹으로 세계에서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가진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PISA 랭킹이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하이, 베이징, 江蘇·浙江 4 도시의 상황으로 중국 전체의 교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3 분의 2 가까운 아이들이 지방에 살고 있으며 그 지역의 출석률은 40%정도로 알려졌다.

또 중국 과학 기술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전체에서 과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6.2%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나 아이들의 스트레스 증대 문제가 지적되는 등, 중국의 교육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PISA 결과나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하이나 북경 등 중국 도시지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 한편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의 교육 수준은 낮으며, 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는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다. PISA 결과가 ‘중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PISA 의 ‘국제 비교 틀’로서의 존재 의의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시라면 도시, 나라라면 나라끼리 비교하지 않으면 미스 리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교육을 생각하는 ‘시험대’로서의 역할

PISA 비판의 급선봉의 한 명이 미국 캔자스 대학 교육학부의 특별 교수 용·차오 씨다.

PISA 최신판이 발표된 2019 년 12 월 3 일, 그 다음날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용 교수의 PISA 비판 논문 초점을 맞춘 장문 기사를 공개했다.

용 교수의 비판 포인트 그 첫번째는 PISA 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PISA 의 주장은 그것이 현대사회 또는 미래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재고 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경험적 역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스킬이란 무엇인가, 또 그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해 실증하는 연구나 데이터는 없다는 것이다.

또 PISA 는, 그것이 측정하는 지식·스킬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경험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

2010 년에 발표된 PISA 의 중요성을 언급한 리포트 'PISA The High Cost of Low Educational Performance'는 향후 20 년에 OECD 국가의 PISA 점수를 25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면 GDP 환산 약 100 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이끄는 논거로 사용된 것이 1964~2003 년에 임의의 국가에서 실시된 국제 테스트의 추이와 그 나라의 1960~2000 년의 경제 성장 데이터. 그 관계에서 PISA 와 GDP 에서도 플러스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유도된 것 같다.

그러나 비판측에서는, 국제 테스트를 받은 것은 아이들이며, 노동시장에 들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간차가 고려되지 않고, 그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0 년 제 1 회 PISA 조사에서 수학 1 위 과학 2 위였던 일본과 수학 2 위 과학 2 위였던 한국. 양국의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시간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PISA 와 GDP 에 강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현재도 수학·과학에서 호순위를 유지하는 일본과 한국이지만, 양국에서는 젊은이의 자기 긍정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등, PISA 의 높은 스코어와 젊은이의 행복감에서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논자도 있다.

차오 교수는 이 밖에 PISA 의 교육 시점에는 문화·정치·종교 등의 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나 교육의 목적이 지나치게 경제에 치우쳐 '교육'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져 있다는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점을 고려하면, PISA 의 결과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존재 의의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나뉘겠지만, 다양성이나 경제 이외의 요소를 근거로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역할'로서의 존재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KIC 중국 NEWS

1. KIC 중국, 중국 최초 IT 창업 플랫폼 처쿠카페와 MOU 체결 (2020.1.13)



사진 1) KIC 중국, 戴文弛총경리와 이상운 센터장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 KIC 중국(한국혁신센터)는 13 일 중국 최초 IT 창업 플랫폼 처쿠카페와 MOU 를 체결하였다. 처쿠카페는 2011 년 설립된 인큐베이션 센터로서, 2015 년 '국가급 인큐베이션' 센터로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

본 MOU 는 양 기관의 핵심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한중창업자를 위한 전문화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중기업들을 매칭, 협력,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혁신창업대회, 로드쇼, 한중과학기술기업 교류정상회의 등 양국 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KIC 중국과 처쿠카페는 MOU 체결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으며, 상호 지원을 통해 상생관계를 유지하였다. 금월 10 일, 삼성전자의 KIC 센터 방문시 이상운 센터장의 안내 하, 처쿠카페를 방문하였으며, 양측은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양국 모두 주목하는 핵심 미래과학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진 2) 출처: KIC 중국, 삼성전자 처쿠카페 방문

중국의 '실리콘벨리'라고 불리는 이노웨이의 시발점이 된 처쿠카페는 중국 전역의 자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매년 수만명의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 정부에서 '처쿠카페'를 명시하며, 혁신 인큐베이터를 대폭 지원, 보급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또한, 같은 해 중국의 국무총리 리커창이 방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운 센터장은 처쿠카페와의 MOU를 통하여, "한국의 스타트업은 처쿠카페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국의 스타트업은 KIC 센터를 통하여 한국의 투자자 매칭 및 한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2. KIC 중국, 일본의 '코트라' JETRO 와 협력 결정 (2020.1.14)



사진 1) 출처: KIC 중국. 회의 사진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14 일 KIC 중국 센터를 방문, 회의를 통해 상호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내 KIC 중국과 JETRO 의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생발전하는 것이 본 협력의 주요 내용이다.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은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카즈유키 카라사와 부분부장과 김경호 투자 총책임자와 한일기업의 중국진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기관의 상호협력 약속했다. 이후 KIC 중국과 JETRO 는 각 기관의 중국 파트너에게 상대기관을 소개하며, 한일기업의 중국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JETRO 의 주요 업무는 코트라와 매우 비슷하다. 주요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일본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스타트업 해외 진출지원,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유치, 일본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플랫폼을 통한 기업 홍보 등

·일본 농수산물, 식품 수출 촉진

일본 전국 플랫폼 설립 및 정보 제공,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수출 지원, 일본 농수산물, 식품의 해외 브랜드 건설 등

·일본 기업 해외진출 지원

·일본 기업, 정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진 2) 출처: KIC 중국, (왼쪽부터) 카즈유키 카라사와 부분부장, 이상운 센터장, 김경호 투자 총책임자

JETRO는 일본 48개 센터, 일본 외 54개국 74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967년 서울에 센터가 설립되었다. 중국에는 북경, 상해, 대련, 광저우, 칭다오, 우한, 청두 그리고 홍콩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2019년 JETRO는 대일본 투자 30조 엔(약 316조 원) 달성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2020년 일본정부의 목표 35조 엔 달성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상운 센터장은 "JETRO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중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가 있기를 바란다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3. (주)기술과가치 KIC 중국 방문 및 업무 협의 (2020.1.16)



사진 1) 출처: KIC 중국. (왼쪽부터 2 번째)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기술과가치 권현구 수석 VP

[KIC 중국 황소정 연구원]

지난 1 월 16 일, (주)기술과가치가 KIC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 회의에는 기술과가치 권현구 수석 VP,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기술과가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민간기업에게 신사업기획기업전략수립 컨설팅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는 만족도조사기관발전계획수립 컨설팅 방식으로, 각 부처별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형식으로 함께 답을 찾아준다. 아울러 다채롭고 풍성한 교육 기술·인문·CS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나간다.

이번 방문에서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의 설명과 함께 KIC 중국 내부를 참관한 후 KIC 중국 대회의실에서 (주)기술과가치 권현구 수석 VP와 KIC 중국 양측 기관의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주)기술과가치는 중국 진출과 한중 창업 진보에 힘쓰는 KIC 중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및 중국 창업 현지에 관한 사례 및 방안을 논의하며 이번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4.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KIC 중국 견학 및 MOU 체결 (2020.1.16)



사진 1) 출처: KIC 중국.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사진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 안동대학교 3 명의 담당교수 및 30 여명의 선발된 학생들은 16 일, KIC 중국 센터 및 이노웨이를 참관하였다. 재중 한국기업 및 중국 창업기관 방문,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한중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교류, 그리고 경진대회를 통한 중국시장의 이해를 주제로 KIC 중국 견학이 진행되었다.



사진 2) 출처: KIC 중국. 중관촌 창업거리 전시관 견학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은 중관촌 창업거리(Innoway) 도착 후 KIC 중국 조강군 부장의 안내에 따라 이노웨이 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중관촌 창업거리의 역사, 입주기업의 현황, 각 기업들과의 협력 방식 등 이노웨이의 전반적 방향과 현재 중국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최신 기술을 경험해 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시관 견학에 이어 KIC 센터의 소개가 진행되었다. 이상운 센터장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 소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현황 그리고 그 안에서 KIC 중국의 역할을 중점으로 소개하였으며, 산학협력단은 한시간이 넘는 강의시간동안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이상운 센터장의 센터소개 후 KIC 중국은 안동대학교 공자학원과 MOU 를 체결하였다. MOU 는 양기관의 교류, 한국 학생의 중국 취업 및 창업, 중국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통하여 한중 문화교류 발전에 기여함이 주 목적이다.

양기관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글로벌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안동 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중국 현지 정보 지원 및 자문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사진 3) 출처: KIC 중국. 안동대학교 공자학원과 MOU 체결, 이상운 센터장-송환아 공자학원 원장

3 박 4 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KIC 중국 방문 외에도 중국의 '세종학당' 공자학원 총부 견학, 중국 명문 대학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는 오전시간의 창업교육, 오후에는 학습한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재중한국유학생과 팀 빌딩을 하여 모의 창업 경진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